

Contents



issue

기획특집	법조계, 생존자 그리고 상담소	2
	반성폭력과 운동의 자리에서 법을 만나다	6

info. in common

거꾸로뉴스	경찰청의 여름철 성범죄 예방가이드에 대한 생각	12
-------	---------------------------	----



survivor's voices

상담실에서	고통의 맥락, 삶의 맥락	14
생존자의 말하기	수의 이야기	17
열린터 생각	열린터 사는 이야기	24

edutainment

몸이야기	여성의 폭력 피해 경험, 몸으로 다시 읽기	30
만나고 싶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활동가, 웃는돌을 만나다	34
이런 프로그램	춤테라피 워크샵 소개	38
소모임 생각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을 이야기하다	40



report & membership

원대상담소	원대 상담소	42
사업 review	달빛아래 여성들, 좋지 아니한가	44
	우리는 지리산 종주 중! 백개의 나를 만날지도 몰라요	46
사업 preview	여성주의 관점의 성폭력 판례 비평	49
들고나기 인사	책임상담원 토리, 김혜경 선생님	50
회원소식	소모임 활동보고	51
	공지 : 신규회원OT는 짝수 月 마지막 목요일에!	
	아낌없이주는나무	

법조계, 생존자, 그리고 상담소

◎ 여성주의 상담팀 이산

올해로 개소 16주년을 맞은 (사)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그동안 5만 7천여회 상담을 통해 생존자와 함께 해왔습니다. 성폭력에 관한 미흡한 법적 규정과 판단으로 생존자들이 수사와 공판, 진료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고 있음을 상담현장에서는 빈번하게 접합니다. 또한 법조인들의 '객관성' 이 사실상 가부장적 사회문화에 토대를 두고 있어, 제대로 생존자들의 경험과 의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2007년 2월 <성폭력, 법정에 서다> 서문 중

우리는 이 운동이 법조인들에게 성편향적이었던 사법 관행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계기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가 피해생존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06. 7.24 판례바꾸기 1차 자료집 취지문

법과 관련된 성폭력상담소의 활동은 크게 법·정책 운동과 판례에 대한 입장 제시, 사건지원 정도로 나눌 수 있다. 법적 절차를 밟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마주하면서 법조계의 인식과 법정책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위치와 다양한 상담·사건지원 경험이 상담소의 강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상담소는 성폭력관련 법 정책의 내용을 검토하고 법 제정 관련 각종 회의에 참석한다. 변화한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는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성폭력 사건 판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도 한다. 성폭력 관련

법 정책이 구심점을 잡지 못하고 산만하게 펼쳐지는 모습,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는 배경과 생존자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해자의 뻔한 스토리인 '내연관계' 나 '화간' 을 쉽게 받아들이는 수사기관의 모습을 보는 것은 일상다반사이다. 법이 국가 질서를 위해 범죄를 처벌한다기보다는 마치 고소인의 개인적인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 수사기관의 태도 역시 상담소의 발걸음을 바쁘게 한다. 권위적인 수사기관과 분노하는 생존자 사이에서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일도 많고, 생존자가 생각하는 법과 법체제의 현실의 간극을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어렵게 느껴지는 상황도 많다. 이 글은 성폭력 사건 발생 후 생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사법부와 생존자에게 갖는 상담소의 기대와 혼란에 대한 단상을 써본 것이다.



■ 피해와 가해를 판단하는 사법부는 누구인가

우리는 제도권 교육과정을 통해 법은 사회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 즉 해당 사회의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 구성된 것이라고 배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회'는 '나'의 입장이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많은 전제를 가지고 있으며, '나'의 합의 없이 이미 누군가에 의해 '구성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생존자는 이미 구성된, 사회적 권력을 갖고 있는 법 체계 앞에서 자신의 피해를 설명해야하는 처지에 놓이며,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성폭력 피해자의 관점이나 입장에 공감하려 하지 않는다. 소위 '공명정대'하다는 법이 이미 성폭력 가해와 성적 행동의 경계선이 없는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떠나'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생존자는 이미 구성된,
사회적 권력을 갖고 있는 법 체계 앞에서
자신의 피해를 설명해야하는 처지에 놓이며,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성폭력 피해자의 관점이나 입장에
공감하려 하지 않는다.

이 글의 처음 부분에 인용한 문구는 성폭력 상담소가 법조계에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을 보여준다. 상담소가 법조인의 의식 변화를 촉구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성폭력 사건의 법적 절차에서 생존자가 2차 피해를 입는 일을 예방하는 것이다. 성폭력 상담을 하다보면, 성폭력 피해의 고통이 사건 당시의 충격이나 가해자에 의한 분노보다 사건 이후 주변인들이 보여준 편견 때문에 더욱 커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성폭력 사건의 법적 절차에서 만나는 법조인 역시 이러한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다. 성폭력 사건을 지원하다보면, 내가 지원하는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나 판사가 피해자를 괴롭게 하는 피해자의 주변인 또는 가해자변호사와 관점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을 졸이기도 한다.

상담소의 판례 비평이나 성명서, 법 개정 운동 등에서 법조계의 의식 변화를 촉구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법조계가 내리는 판단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위와 용인되지 않는 행위의 기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상담소는 이 영향력 때문에 법조인에게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생존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판단을 원한다. 그러나, 바로 이 영향력 때문에 법조계는 더욱 움직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 사회에 영향을 크게 미치려면,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뒷받침하면서 얻게 되는 안정성과 권위를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법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위와 용인되지 않는 행위를 구분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특정 성폭력 사건들을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범위로 새롭게 설정하자는 것과 성폭력을 용인하는 '사회'가 사실상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문제제기하는 것은 서로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승소 운동은 성폭력을 용인하는 바로 그 '사회'의 기준과 끊임없이 협상하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상담소는 생존자와 함께 사법부의 권력이 누구를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비판하면서 동시에 사법부와 '대응한' 권력체가 되어버리는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다.

개별 사건에 대한 승소 운동은
성폭력을 용인하는 바로 그 '사회'의 기준과
끊임없이 협상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 생존자는 사법부에 무엇을 기대하는가

사건을 지원하면서 '이것이 성폭력이다' 라고 선언하는 사법부에 대한 고민은 커져만 간다. 사법부가 특정 사건을 성폭력이라고 명명해도 짹짹하고, 아니라고 해도 짹짹한 경우가 종종 있다. 성보수주의나 남성중심적 관점의 '여성보호'를 기반으로 하여 성폭력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안타깝고, 그 '보호받아야 할 여성'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만으로 물적 증거가 있어도 가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분노스러운 것이다.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어째서 재판부가 내 편이 아닌지', '그럼 이제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것인지' 묻는 생존자에게 공감의 말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법 관련 운동을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하는 것은, 상담소의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체감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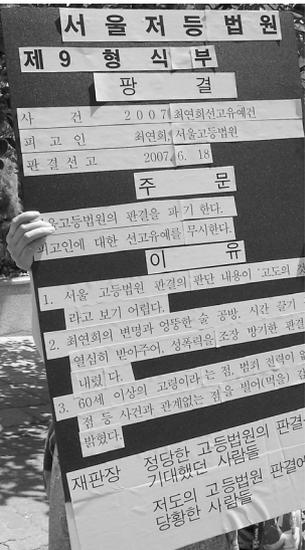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소인인 생존자는 대부분 '진정서' 라는 형식을 빌어 재판부에 자신의 의사를 전달한다. '존경하는 재판장님'으로 시작하는 그 편지는, 생존자가 피해의 과정과 그 후의 힘들었던 시간을 주로 전하게 된다. 반면 상담소는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다. 재판부가 남성중심적 시각으로 인해 사건에서 고려해야할 피해자의 입장을 외면하거나, 왜곡된 시선으로 피해자의 행동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또는 특정 유형의 성폭력 피해가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는지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입장에 대해 가장 생생하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 가장 열심히 법적 절차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여러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생존자인 경우가 많다.

생존자가 재판부를 상대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의 '의견'을 내는 모습은 왜 찾아볼 수 없을까? 생존자가 '객관적'일 수 없는 피해 당사자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성폭력 사건을 상담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경우 성폭력 사건에서 발생하는 모든 역동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피해를 입은 생존자이다.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워낙 생존자에게 책임을 묻는 식으로 왜곡되어 있다 보니, 주변의 시선을 민감하게 챙기게 되고 자신의 경험을 끊임없이 재해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가해자가 자신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히거나 후에 보복을 하는 등의 염려를 하게 될 경우, 가해자를 최대한 처벌하여 자신이 안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법적 싸움에 온 힘을 쏟게 되기도 한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입장에 대해 가장 생생하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 가장 열심히 법적 절차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여러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생존자인 경우가 많다. 실제로 상담·지원현장에서는 해당 사건의 생존자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지원자가 가장 적절한 내용을 가지고 법적 절차에 개입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생존자가 개인적인 고통을 강조하면서 사건에 접근하게 되는 것은 생존자가 수만 건의 상담을 해온 상담소만큼의 '권위'가 없어서가 아니다. 사실 생존자가 사법부에 기대하는 것은, '국민인 나'를 보호해주고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 이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고소까지 하느냐'고 반문하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성폭력에 대해 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이 '인정'해 준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해자를 처벌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재판부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믿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도, 재판과정에서도 웬지 위축되고 조심스러워진다. 그러한 경험은 때론 억울함과 좌절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공명정대'한 재판부의 이미지를 다시 한 번 확립하는 경험이기도 하다. 남성중심적인 수사기관의 편견에 대해 분노하면서도, 나의 피해를 입증해줄 수사기관의 '공정'한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다.



■ 상담소는 무엇을 전략으로 삼고 있는가



상담소는 법조계를 설득하는 동시에 생존자를 지원한다. 얼핏 보면 같은 방향일 것 같은 이 두 가지 활동에서 딜레마가 생긴다. 한 쪽으로는 법조계의 남성중심적인 인식 체계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생존자의 경험이 '상담을 6만건 쯤 받은 상담소의 전문성'으로는 충분히 이해 가능하고 당연히 사건에 대한 판단에 반영할만한 부분이라고 끊임없이 설명한다. 그러면서 개별 사건을 지원할 때는 생존자에게 법 체계의 인식과 언어에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줄 것'을 조언한다. 피해자가 합의나 피해보상을 먼저 요구하면 '꽃뱀'으로 몰릴까봐, 증거가 없이 고소하면 무고죄로 고소당할까봐, 가해자 신상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유포로 고소당할까봐 노심초사하게 되는 것이다. 가해자에 대한 공격적인 표현이나 재판부에 따지는 듯한 내용도 진정서에 쓰기엔 조심스러워 한다. 최혐의설이 버젓이 자리잡고 있는 법조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저항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유도 열심히 정리해보아야 한다. 생존자와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사법부에 대한 생존자의 인식을 재구성하는 오랜 작업을 재판이 기다려주지는 않기 때문에 전략에 깔린 전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전략부터 밀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문득 숨을 고르고 생각해보면, 상담소가 생존자들의 경험을 때론 날 것 그대로 사회에 내어놓도록 돕지 않으면 이 싸움은 평행선으로 계속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고개를 든다. 소위 말하는 '합리적인 여성' 관점에 맞게 행동한 생존자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나쁜 것이고, 이에 맞지 않았다면 오죽 상황이 어려웠으면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행동했을까 생각하며 가해자가 더 나쁘다고 말할 수도 있다. 얼핏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사회가 요구하는 피해자 기준 아닌가. 피해자가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면 피해를 믿을 수 없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면 무언가 계산된 뒷공작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 말이다.

현재의 법조계는 성폭력에 대한 생존자의 관점을 이해한 판결을 내리기엔 큰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소가 생존자와 법조계의 사이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개별 사건의 승소를 위한 전략에서 상담소가 비판하는 법조계의 전제를 뒷받침하기도 하며, 생존자와 법조계 사이에 존재하는 수직 구조가 어느새 상담소와 생존자의 관계 안에도 밀고 들어오게 되기도 한다. 생존자들에게 '상담소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갈 곳이 없다'라든지, '여성단체가 재판부에 이야기를 해줘야 사건이 해결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상담소의 운영 기간과 상담 건수를 매 의견서에 쓸 때마다 마음 한 쪽 구석이 씁쓸해진다.

과연 상담소는 지금의 '남성중심적인 법조계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할 때일까? 좀 더 많은 생존자들이, 좀 더 많은 여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날 것' 그대로, 세상이 보기에 '오버'하는 그대로 내놓는 것이 시급한 때가 아닐까?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때론 상담소에서 만나는 용감한 그녀들에게 위험을 없앨 벽을 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생길 그 위험에 함께 하겠다고 말하고 싶은 충동을 점점 자주 느끼고 있는 요즘이다. ☹️

개별 사건을 지원할 때는
생존자에게 법 체계의 인식과 언어에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줄 것'을 조언한다.
 ... 그러나 문득 숨을 고르고 생각해보면,
상담소가 생존자들의 경험을 때론 날 것
그대로 사회에 내어놓도록 돕지 않으면
이 싸움은 평행선으로 계속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고개를 든다.

반성폭력과 운동의 자리에서 법을 만나다.

“ 2007년 여름, 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 항소심 판결, 술따르기 대법원 상고심 판결 등 잇따른 성폭력에 대한 보수적 판결에 우리는 매우 분노하고 혹은 낙담했습니다. 그런데 법과 성폭력? 무엇이 충돌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법에 기대하고 어떤 전략을 기획해왔을까요? 반성폭력운동이 법과 어떻게 만나고 싸우고 상상했는지, 무엇을 앞으로 할 것인지 이번호 기획특집에서 좌담해보았습니다. ”

- ◎ 좌담 : 키라, 자주, 오매(상담소 활동가), 권김현영(여성학 연구자)
- ◎ 정리 : 오매



오매 법과 성폭력에 대해서 각자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키라 주로 상담할 때 드는 생각인데, 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하고 고소를 시작하면 그 이외의 것은 생각하지 못하게 될까 얘기해보고 싶었어. 최선을 다해서 승소하도록 돕는 데 시간을 다하게 되고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법적절차가 끝난 이후로 유예해야 하고.

자주 공소시효 연장·배제를 위한 공익소송할 때.. 굉장히 오래 전 성폭력 사례 같은 경우는 피해 자체가 절대화돼, 더 이상 소통이 안되고. 공소시효를 법적으로 늘리는 것에 집중하면 내담자의 목소리 삭제돼,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 것은 법적 투쟁에서는 효과없는 방식이니까. 또 법조계는 공소시효를 늘리는 것이 법체계 자체를 흔드는 거라고 고개를 짓는데 성폭력만이라도 해야된다고 말해야 하나? 피해자를 단일화하는 것도 때 쓰는 것도 아니면서 이것은 뭐여야 할까? 그런 고민이 들었어.

오매 법이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정의, 사회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전하는데 중요한 언로라고 흔히 생각하는데, 정말 그런가? 어떤 판결이 네이버 탑에 떠도 그 판결의 논지에 대해서 읽게 되거나 논쟁하거나 받아들

이게 되거나 하지 않는 것 같아. 사람들이 오히려 성폭력 문제제기에 대해서 인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법적인 언어보다는 생존자 자체의 서슬퍼런, 고통의, 미친듯한 목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성폭력의 법적인 개념보다 더 급진적인 정의를 내리는 여성주의자의 행동들도 많았잖아. 형법 개정안 발의 하면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

자주 형법개정안에는 그 동안 여성계에서 얘기해왔던 것들이 대부분 들어가있어. 친고죄의 비친고죄화, 친족의 범위 확대, 비동의 간음은 동의없는 성적 행동이라고 삼입이 없는 행위까지 확대한 개념이고 등등. 이 작업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동의없는 성적행동 등의 개념이 법의 안정성을 흔든다고 얘기해.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도 하고. 근데 나는 다른 면에서 정말 비동의 간음죄를 법적으로 얘기할 때 어떤 효과를 갖는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여성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친고 비친고죄는 또 어떠한지 얘기를 너무 못해봤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쉬워. 초반에 개정안 작업할 때는 너무 필요한 일이니까, 라고만 생각했는데 상담소 활동을 하면서 이것이 법적으로 다 규정되는 것, 폭넓혀지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 고민이 생기더라구.

2000년대 법신주의 사회와 성폭력

권김현영 처음에 성폭력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그것이 법적으로 당연히 언어자체가 없었고 언어가 법에 있다 없다가 중요하지 않았던 순간이었지. 개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 개인들이 없어지는 방식이 얼마나 문제인지, 이 고통이 어디에서도 자리잡을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지 호소하면서 법이 누락하고 있던 정의에 대해 충격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해.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에서 결과적으로 우조교에 법이 손을 들어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법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구나' 생각했을 거야. 성폭력이 기존 법의 권위를 흔드는 운동이었던 측면이지.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스템이 안정되고 지속되려면 누가 그 자리에 있어도 일반 보편적인 법칙으로 존재해야 하는데, 그 법이 합리적 여성의 관점을 계속 인정해줄 것이냐 아니냐의 양상이 되는 것 같아. 처음에는 피해자의 재현과 법에 누락되어 있는 무엇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하나하나의 판례가 중요해지는 거지. 판례가 반복되어서 이런 건 무조건 처벌받는다 이런 것은 범죄라는 항목으로 성폭력이 등록되도록. 성폭력 말고도 민주사회 이후 어떤 식의 법신론, 가령 사회적 판단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토론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헌법이라는 절대적인 정신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의탁하고 최종질문하는 법신주의가 팽배하게 된 것 같아. 그것과 '합리적 여성의 경험을 법이 어떻게 볼 것인가'와 만나면서는 그것을 판단하는 주체로, 즉 법으로 수렴되고. 한편, 법이 물신화되면서 법의 기능이 정의의 기능이 아니라 개인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능이 되는 거야. 법은 정의다, 라는 개념이 자본에 의해 균열나는 현상. 성폭력의 위치는 기존 법의 보편성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보편성을 만들어보려고 한 시도였지만, 법이 여성의 정의가 아니라 여성의 이해관계를 판단하고 조

정하는 법이 된다면? 법의 정의와 개인의 이해관계를 보증해주는 싸움, 그 사이에서 운동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본주의 사회에 살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피해 때문에 잃어버린 시간과 자원을 회복시켜 주는 힘인 자본을 법의 승리를 통해 얻어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아닐까? 싶게 돼. 사실 피해자에게 “유죄다” 하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시기인 듯해.

오매 한국에서 법신주의의 모습은? 운동단체들이 법개정, 개정, 공익소송 등을 과신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 그건 어떤 발상에서 근거하는 걸까? 한국사회에서 굉장히 일상적으로 법신하는 분위기가 생긴 것도 같은데.

권김현영 정치적 주체, 집단성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는데 예를 들어 80년대는 학생들 말고는 정치적 주체가 될 수 없었고 어떤 시대에는 종교인이었지. 최근에는 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변호사 집단이 사회를 바꾸는 중요한 흐름이 되기도 했어. 2000년대 이후 많은 변호사가 국회의원으로 진출, 정치세력화 되면서 법조인들이 정치, 행정, 사법 체계를 장악하기 시작한 것도 그렇지. 90년대 이후 냉전이 붕괴되고 사회혁명보다 개혁을 통해 내부로부터의 안정성을 가지는 민주화체제가 법이라는 형태로 구조화된 결과라고 생각해. 사람들의 동의와 신념도 법의 형태로 구조화됐고. 미국 사회에서 부자가 되려면 로또나 소송을 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물신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해. 한국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변호사수가 많아지면 가속화될 것이지? 사람들이 너와 나의 싸움에 대한 판단을 너와 나 사이에 해결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스턴트처럼 법을 통해 결정하는 거지. 그러나 그것은 '주체' 일 수 있을까? 정말 주권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법을 쉽게 고용하면서 고용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을 모르게 되는 것은 아닐까? 사실 90년대는 성폭력이 법에 있건 없건 간에 '~이어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법의 권위는 유지한 채 법의 전문성이 포함된 권위에 일정정도 존경심을 주면서 그 안에서 살아갈 방법을 찾게 되는 것 같아. 참고로 법은 진실을 알려주지는 않잖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형식을 알려주지. 가해자한테 20년동안 감옥에 가있어라, 피해자한테 이걸 갖고 살아라하는 식의. 진리와 법은 별개의 영역이라는 거야. 여기서 아예 완전히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라면 법한테 갈 이유가 별로 없게 될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 구조안에서 법이 발현될 때는 적어도 젠더 편견없이 공정해야 한다고 계속 싸워야 하겠지. 다수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에는 공평함이 꼭 필요하니까. 한편으로는 법의 일관성, 일관된 진술, 진실성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어. 법은 정의이다. 법이 정의이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정의로워야 한다, 혹은 약자가 어떤 종류의 정의로움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명제들. 법의 정의로움에 대한 기대가 포기되지 않는 한, 상호적으로 피해자의 정의로움에 대한 기대도 포기되지 않을테지.

피해자의 법적 싸움, 확장된 목표로 여러 위치에서

오매 상담소에서는 법적 지원을 할 때 형사소송은 많이 하지만 민사소송은 변호사 연계하는 것 말고 직접 지원은 거의 없지 않잖아. 어떻게 생각해?

지주 여전히 법의 선과 진실에 가해자가 이 사회에서 나쁜 성폭력 범죄자라는 것을 호소하는 게 법적절차라고 생각하잖아. 그게 형사소송이라면 민사소송은 우리가 변호사도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사건에서 어떤 손해를 입었느냐의 손해배상청구는 반성폭력운동의 쟁점이 아니라고 본 거지.

권김현영 진실이냐 아니냐로 싸우는 형사소송은 그 진실을 결정해 주는 것이 법이 되는 것이 문제고, 민사소송은 진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의 문제. 깨

져버린 나의 주체성, 존재성broken subject을 회복하기 위해 이 사회 가장 보편적인 삶의 형식인 자본의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의지지. 근데 그 의지의 가능성, 중요성을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아.

키라 민사소송은 돈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했어. 상담소 오는 사람들의 많은 수가 가난한 여자들인데 민사소송을 감히 시작하지 못하고 나도 민사소송을 권하지 못하고.

오매 어떻게 보면 상담소가 개별 사건을 지원함에 있어서 표준화된 법적 절차를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가능한 것에 대한 지식과 상상력으로 다양하게 시도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고소인, 참고인이 되는 것 외에 여러가지 지위를 상상하는 것이 필요하겠네. 정당방위를 하다가 상해치사 가해자가 된 피해자를 지원했었는데, 피해자의 위치가 형사소송에서와는 달라서 그런지 재판때마다 매우 적극적으로 여러가지 모습과 이야기를 재판정에서 펼쳤던 것 같아.

키라 피해자가 피고소된 사건이 많아. 사기, 명예훼손, 방화 등등. 나는 그 사건들을 열심히 지원하고 싶은데 방화 사건은 의뢰지원이 어렵고, 피해자중 명예훼손 용의자가 된 사건은 연계경찰이 상담소가 왜 용의자를 도와주냐고 조심하라고 하더라구. 내가 그 형사에게 도대체 될 자문받은 거냐고.

권김현영 상담소 자문, 자원활동하는 변호사들과도 새롭고 다양한 법적 기획을 하고 소송을 설계해볼 가능성이 있지. 이미 법률구조공단에서 하고 있는 단순 법률안내,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도전하는 어떤 부분, 법을 이용하는 어떤 부분 다 포함해서 더 기획적인 일들이 탄생했으면 좋겠어.

법의 객관주의가 간과하는 것

오매 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바꾸기 운동을 하면서 그

효과나 영향력이 어떻다고 느껴요?

자주 판례바꾸기 운동의 경우 작년 하반기 폭행, 협박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처럼 좋은 판결들이 나올 때는 이 운동의 효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최연희 사건 판결 등이 나올 때는 여전히 똑같아. 너무 개별사건마다 다르고 가늠하기가 힘들고, 운동의 타겟은 있는데 그 운동이 어떤 효과를 추동하는지는 모르겠달까. 그것의 한계, 가능성을 보는 순간들이 너무 참나적이어서 뭐라고 딱히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느낌도 있고.

오매 전체적인 판결들의 흐름과 우리 운동의 영향력 등을 체감하거나 분석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하나 환영할 만한 혹은 비판할만한 판결을 잡아서 논평하고 성명서 내고... 그렇게 의미부여하는 것이 판례의 지위를 과증하게 만들지는 않나?

권김현영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것을 방치하면서, “법이 일관되지 않아서 문제”라고 하는 것도 힘이 없겠지. 일관되기를 바라기는 하는데 일관성을 얘기하면 다시 자가당착에 빠지거나 좁게 해석되게 될 딜레마도 있고. 판결을 분석하고 비평하는 건 누가 그렇게 판결했는가? 에 집중하는 작업인 것 같아. 그 판사는 이런 판결을 낸다거나 그래서 자질이 문제라거나 그래서 그 판사에게 재판받고 싶지 않다거나. 법은 같은데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게 아니야. 오히려 법은 사람들이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자주 판사별로 판결을 소트하고 분석하고 판사별 영향 평가 같은 것!

권김현영 법이 갖고 있는 특유의 형식이라고 생각해, 칸트식 법체계 같은 것. 순수 보편형식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누가 하고 있느냐는 전혀 중요하면 안된다는 거야. 판사의 재량권을 죽이는 식으로 형법체계가 가게 되고, 판사는 특별히 전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보직에

두루 순환되면서 어떤 법도, 어떤 세상사도 다 판단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지고 수사, 공판검사가 분리된 것도 개인적 주관성이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때문이잖아. 그러나 사실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 공판검사는 아는 것이 없어서, 피해자 피고인을 직접 안 만나봐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법정에서 변호사가 말도 안되는 심문을 해도 가만히 있잖아. 관계성 자체를 무시하고 텅 비어있는 형식, 그것을 법에 깔려 있어야 하는 일관된 정의의 형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만 객관성이라는 걸 관계를 다 삭제하는 걸 통해 얻을 수 있을까? 더 알게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반복하는 건 기존 관습과 상식이야. 법이 왜 변해야 하는지 맥락적 사고를 못하게 되는 거지. 변호사가 법정에서 판사나 검사보다 하급 지위(?)가 되는 것도 피해자와의 관계성, 개별 사건의 특수함에 더 가까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오히려 변호사와는 피해자 운동이 더 연대하고, 다른 싸움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 여성 판사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인데 반해서. 그래서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같은 운동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 민간법정이지만 국제법이, 국가법이 이미 끝났다고 종결한 문제에 대해 새롭게 싸움을 만들어낸 것! 법의 절대성을 약화시키고 피해자들이 받는 위로와 힘을 만들고 새로운 언어를 갖게 한 방식이었다고 봐.

자주 공소시효 공익사업을 기획하면서도 그런 구상을 해본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유엔이나 여러 국제기구, 여러 국가들의 권위가 결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은 아니었나? 또 다른 권위에 의존하는 식의.

권김현영 피해자의 국적을 넘어 보편성이라는 것을 운동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동원’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 그것이 동원되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폭력이 어떤 식의 세계 공동보편적인 억압이라고 주장하



고자 한다면, 돌파구를 찾기 위해 그런 방식의 연대체를 시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 판사별 판결의 문제, 수사·공판검사 분리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기존 법에 절대적으로 기대지 않는 한편, 국제 모의법정식의 싸움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남자들한테는 익숙한데 여자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이기고 지는 싸움으로 다시 여자들을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계적 무능, 타인에 대한 동정심 없음을 폭로하는 자리로서 법이라는 공간을 만드는 것! 법이 공동체의 구성원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 구성원이 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는 법 운동이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인간됨을 위해 싸울 때 법을 듣거나 놓거나 빠져나가거나

키라 나는 현실적으로 법적 해결이 힘든 사건임에도 그 방식을 절대적인 구원으로 생각하는 분들과 '이 사건은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법적해결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법적 해결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당신이 생각했던 것을 대체할만한 우리의 생각은 무엇인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런 내용이 정리되고 그걸로 다른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면 참 해방감을 느낄 것 같아.

권김현영 인간성이 파괴되지 않는 형식의 싸움이 필요해. 법 싸움 안에는 목적이 전도되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할 때, 법적싸움이 다가 아닙니다 라는 말은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가해자가 처벌돼도 나는, 우리는 살아가야 하니까 그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진실된 이야기일 수 있는 거지.

키라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고, 사과하지 않아도 나의 존엄성이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

권김현영 결국 인간성이 파괴된 것은 용서를 구하지 않은 가해

자지. 가해자를 다른 권위에 맡겨버리고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했으면 좋겠어. 가해자가 자신의 모습을 진심으로 보고 성찰하게 되면 충격먹고 자살하게 될 텐데.

자주 상담현장에서 법적인 지원은 여전히 많이 요구되고 있고, 법적인 절차와 정보를 알리는 것이 상담지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과 비중을 차지해.

권김현영 그것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지. 가해자가 법적 과정을 통해 처벌되어야 할 때도 있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현재 법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도 여자들이 또렷이 알아야겠지. 다만 그 이상의 어딘가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해. 그것 외에는 완전히 묻어 없을 때와는 얼마나 다를까? 든든하게 얻은 방식과 정보들을 가지고 계속 전진하는 것! 그런데 왜 법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법으로 해결하려고 할까. 다른 여자들이 아무리 나쁜 놈이라고 얘기해도 소용없고, 아버지급보다 더 센 남자가 가해자를 나쁜 놈이라고 얘기해주야 문제가 해결되는, 법을 일종의 큰 아버지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것일까? 법은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해. 아, 유일하게 아는 관계가 있구나, 가족의 관계를 법의 형식으로 만들어서 재산, 분배 등의 문제에 개입하는 가족법.

자주 여성이 사회적 자원이나 권력이 실제로 거의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어떤 식으로든 괴롭힘을 당해야 한다면 테러를 하는 식의 방법이 아니고는 법이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게 아닐까.

권김현영 법이 관계에 무능하다는 것이 양날의 칼일 수도 있어. 어떤 종류 이하의 괴롭힘은 처벌할 수 없는데, 그건 상대방이 나한테도 그렇겠지만 나도 상대방한테 그럴 테니까. 그래서 게릴라식, 개인적 복수, 주변의 소문내기, 사랑한다고 계속 얘기하기 등 여자들이 복수를 시도하잖아. 아무 것도 가진 게 없어서 아무 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를 법으로 처벌 못하면 상대도 나를 처벌 못하는 그 '공평한' 법의 지점에서 무언가 시도하기.

키라 하지만 그런 행동들이 또 얼마나 불리하고 위험할 수 있는지 계속 이야기하기도 해. 명예훼손 등의 위협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되게 모순적인데 그 여러 심정과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어떻게 나누고 있나?

스스로 입법하는 주체들이 운동을 만든다

오매 마무리해봅시다.

자주 성폭력 개념이 확장되어왔고, 또 법과 무관하게 우리의 개념을 얘기해왔는데 그동안 중요한 성과를 낳았다고 생각해. 다만 그런 운동이 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현장에서 느끼는 법적 개념 확장의 의미와 실제 법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관계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상담소가 법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성폭력의 내용을 정의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법적으로 모두 해결 가능하다'는 환상을 주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상상하게 하는 비전을 만들어내야겠지. 그러기 위해 법 운동에 대한 성찰, 다양한 운동방식이 필요하겠고!

키라 법제도 관련된 운동을 계속 하기로 결심한다면 여성운동 단체로서 법제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운동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 그 운동을 통해 무엇을 바라는가, 이것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운동의 내용으로 만들 것인가 구체화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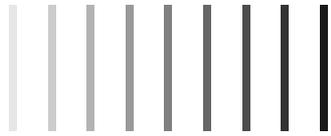
권김현영 예전에 자기 사건이 법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한테 남아있는 피해와 기분 나쁨을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하는 피해자를 만났는데, 그 분과 그런 지점이 법에 반영된다면 어떻게겠는가, 비동의간음죄라는 것을 신설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분은 "나도 모르겠는 내 마음을 법이 어떻게 알겠냐"면서 자신의 애매한 상황을 법으로 만들 경우,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좋을 것인가,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나한테도 적용되고 타인에게도 적용되면 좋을 공통된 무언가'를 만드는 마음이 여기서 시작되는구나 싶었어. 자기 입법적인 주체가 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기존 법 언어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것이 왜 처벌되고 법으로 해결되어야 하는지, 혹은 이 언어로는 충분하지 않구나 그래서 법이 아니어야겠구나 등에 대한 자기의 법을 만들어보는 것. 정의라는 것이 있다면,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어야 할 것인가? 를 고민하는 자기 입법적 주체들이 존재했으면 좋겠어. 그것은 또 자기의 인간성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져야 새로운 성폭력에 대한 정의, 새로운 보편성을 구성해갈 수 있지 않을까?

오매 반성폭력의 새로운 운동, 법에 대한 상상력도 다양한 자기 입법적 주체들이 구성해가는! 그것을 위한 어떤 장을 펼칠 수 있을까? 새로운 일들을 마구 떠올리며 오늘의 대답을 마치겠습니다. ☺



경찰청의 여름철 성범죄 예방가이드에 대한 생각



◎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원사

지난 7월 6일 제4회 밤길되찾기시위를 준비하느라 분주했던 그날 오전, 우리는 경찰청에서 '성범죄가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라는 지침을 내놓았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뭘까? 치안에 좀 더 신경 쓰겠다는 대책이 나왔을까?”라는 조금의 기대는 여지 없이 무너졌다. 그들이 내놓은 '성범죄 예방 10대 요령'은 성폭력을 여성들의 옷차림과 부주의함으로 돌리고 있었다. 참으로 우연의 일치치고는 별로 유쾌하지 않은 일치다. 달빛시위는 가해자 혹은 가해 문화, 여성대상혐오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메시지가 전혀 아닌 여성들의 행동권만을 제약하면서 성폭력의 원인을 은근슬쩍 여성들에게 떠넘기는 세상의 편견에 저항하는 운동이다. 이런 역사적인 날 여성들에게 들리는 #%\$&* 소리라니!

상담소는 경찰청에 전화와 공문을 통해 문제제기를 했고 회원들에게 항의전화를 독려하며 그들의 논리가 얼마나 황당한지 비교해보도록 경찰청 주장과 똑같은 버전을 작성하여 아래 표의 내용을 회람했었다.

왼쪽 표에 있는 경찰청 가이드는 우리 사회에서 자주 듣던 익숙한 말들이다. 발생 원인을 피해자 행위 탓으로 돌리는 유일한 범죄인 성폭력에서는 '억지주장' 이 상식이 되고 오히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적대적인 논리' 로 취급된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오히려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오른 편에 있는 내용이 실천되어야 하지 않을까? 문제해결의 핵심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의 심경을 불편하게 하는지에 대해 통찰력 있는 이성적인 판단이 참으로 아쉽다.

2008년 8월 계속되는 더위와 습한 공기보다 더 짜증나는
경찰청 지침을 생각하며 쓴 날적이

검찰청 허접 가이드와 그 수준에 꼭 맞는 역시 허허^쩍 가이드

경찰청 - 여름철 성범죄예방가이드	경찰청에 딱 맞게 대응할 만한 성범죄예방가이드
<p>① 휴대전화에 112 입력 휴대전화 단축번호 0번에 범죄신고전화번호 112를 입력시켜 놓았다가 긴급상황 발생시 누르면 경찰 순찰차가 바로 달려간다. 소형 호루라기를 휴대전화에 달아 뒀다가 비상시에 부는 것도 좋다.</p>	<p>① 휴대전화에 112, 119 입력 휴대전화 단축번호 0번에 범죄신고전화번호 112나 응급차량 119를 입력시켜 놓았다가 본인이 가해를 할 것 같은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함. 한순간의 선택으로 범죄인이 되는 일은 스스로 막는다. 경찰 순찰차가 바로 출동할 때 당신의 범죄예방 의지를 격려해줄 것이다.</p>
<p>② 어둡고 으스스한 밤길은 위험 야간 외출을 삼가고 불가피할 경우 가족들이 마중 나오도록 한다. 골목길보다는 환한 대로로 가능한 한 2명 이상이 다니고 주변을 살핀다.</p>	<p>② 어둡고 으스스한 밤길은 위험 야간 외출을 삼가고 불가피할 경우,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마중 나오도록 한다. 가능한 사람이 많은 길로만 다니고 누군가에게 가해를 해야 속이 풀릴 것 같다는 내면의 의지를 꺾을 수 있도록 친구들에게 고백하고 가능한 함께 다닌다. 하지만 성폭력은 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으므로 아는 사람을 되도록 만들지 않는다.</p>
<p>③ 지나친 노출의상은 성범죄의 표적 지나치게 노출이 심한 옷은 성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호의를 베푸는 척하며 동승을 권유하는 차량에 될 수 있는 대로 타지 않는다.</p>	<p>③ 지나친 노출에 대한 편견수용은 가해자가 되는 지름길 노출이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에 유혹을 느낀다는 생각은 스스로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준비운동 중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것은 변명꺼리다. 만약 그런 순간이 오면, "말도 안돼, 내가 미친놈이다"라고 되뇌이며 자신의 범죄의지를 꺾어야 한다. 혼자 안되면 1번에서 말했듯이 112나 119에 신고한다.</p>
<p>④ 지하주차장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요 될 수 있는대로 여성전용 주차장이나 폐쇄회로TV, 주차안내원, 관리인 등이 있는 주차장을 이용한다. 일반주차장을 이용할 때도 외진 곳을 피하고 출입구나 엘리베이터가 가까운 안전한 장소에 주차하고 부근에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 살핀다.</p>	<p>④ 지하주차장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요 주차장은 외진 곳을 피하고 폐쇄회로TV, 주차안내원, 관리인 등이 있는 주차장을 이용한다. 그런 곳에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다면 차라리 아무데나 사람이 많은 곳에 주차한다. 당신이 범죄자가 되는 것보다 당신차가 견인되는 편이 낫다는 걸 명심한다.</p>
<p>⑤ 문단속 생활화 여름철 날씨가 덥더라도 반드시 창문과 출입문을 잠근다. 외출 - 귀집시 창문과 베란다문이 잠겼는지 확인하고 현관문 우 유투입구는 막아 놓는다.</p>	<p>⑤ 문단속 생활화 여름철 덥더라도 가능한 외출을 삼간다. 창문과 출입문도 꼭꼭 잠근다. 가능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꺾을 수 있도록 외부로 통하는 모든 문은 다 잠귀 둔다. 하지만 가족에게 가해를 할 수 있으니, 여름철은 반드시 별채를 얻어 혼자서 지내는 것을 강구한다.</p>
<p>⑥ 과음은 사건·사고의 원인 술에 취하면 판단력과 방어력이 떨어지므로 술자리는 가급적 일찍 끝내고 귀가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도착지에 미리 마중 나오도록 한다.</p>	<p>⑥ 과음은 사건·사고의 원인 술에 취하면 판단력과 자제력이 떨어지므로 술자리는 가급적 갖지 않는다. 잠시 동안의 기분 좋은 술자리가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 또한 술을 마신다고 모두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는다. 술 역시 핑계일 뿐이다. 당신이 핑계거리를 찾고 술을 마시고 타인에게 해를 끼칠 마음이 생기는 걸 느끼면, 차라리 술에 수면제를 타서 마신다. 타인에게 해를 주느니, 하루 누숙 하는 것도 좋다.</p>
<p>⑦ 낯선 방문객은 문 열기 전에 반드시 확인 문에 달린 카메라나 구멍을 통해 방문자를 확인하고 안전고리를 걸어 놓고 대화한다. 택배원이나 경찰관 등이 왔다고 할 경우 회사 등에 전화로 확인한 뒤 문을 열어 준다. 평상시 아이들에게도 함부로 문을 열어 주지 않도록 교육한다.</p>	<p>⑦ 낯선 방문객은 문 열기 전에 반드시 확인 방문객임을 가장하고 혹은 어린이들에게 안심하게 한 후 다가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엄중 처벌된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사람의 신뢰를 이용하여 저지르는 범죄처럼 사악한 것은 없다. 친밀한 관계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 혹은 직장동료를 상대해서도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 만약 그러하면 당신은 보통의 형량보다 더 가중처벌 받는다. 낯선 방문객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경찰서를 방문한다. 전국에 수많은 경찰서가 있으니, 항상 낯선 방문에 대한 욕구는 충족될 것이다.</p>
<p>⑧ 집앞이라고 방심은 금물 수상한 사람과는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지 않는다. 만일 수상한 사람이 뒤따라 올 경우 바로 타지 말고 다음 차를 기다린다. 부득이 함께 탈 경우 여자하면 비상벨을 누를 수 있도록 대비하고 가까운 층에서 최대한 빨리 내린다.</p>	<p>⑧ 집앞이라고 방심은 금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생각보다 많다. 당신 자신을 믿지 말라. 가급적 가족과도 마주 앉지 않도록 한다. 이웃사람들을 쳐다도 보지 않는다. 당신 자신을 믿지 말고, 고립되어 산다. 다른 사람과는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지 않는다. 엘리베이터는 언젠가 기다리면 혼자 탈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p>
<p>⑨ 안전한 피서가 되려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피서지를 이용토록 하고 가족들에게 행선지를 알린다. 깊은 계곡이나 인적이 드문 피서지에서는 성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피서지에는 여럿이 함께 가고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를 미리 확인해 둔다.</p>	<p>⑨ 안전한 피서가 되려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피서지를 이용토록하고 가족들에게 행선지를 알린다. 깊은 계곡이나 인적이 드문 피서지는 한가하고 좋은 곳이지만 피한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무서워하며 다녀야 할까? 당신이 가해자이거나 혹은 가해자로서의 선택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면, 반드시 당신 자신이 스스로를 가두거나 사람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p>⑩ 택시 탈 때는 이렇게 귀가가 늦더라도 합승은 자제하고 운전석 옆좌석 대신 뒷좌석에 앉는다. 택시 탑승시 차량번호를 외워 두고 탑승 후 부내, 혹여라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당신의 의지를 예방한다.</p>	<p>⑩ 택시 탈 때는 이렇게 귀가가 늦더라도 탑승은 자제하고 뒷좌석에 앉는다. 택시 탑승시 차량번호를 주변에 문자로 보내, 혹여라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당신의 의지를 예방한다.</p>

* 피해자 대상 예방가이드를 가해자 대상으로 바꾸면 피해자에 대한 통제가 얼마나 부당인지 느껴지지 않나요?

고통의 맥락, 삶의 맥락



◎ 여성주의 상담팀 활동가 키라

첫 상담을 할 때에는 개인에 대한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얻게 된다.

그녀의 나이, 직업, 준거 집단, 학력, 가족 관계, 사는 지역 과 같은 정보들을 알게 되면서 상담자는 그녀를 이해하고 동시에 오해하기 시작한다. 객관적인 정보들을 들으면서 상담자인 내가 갖고 있는 사전 지식과 느낌으로 나는 그녀의 사회적 정체성을 추측한다. 이 추측은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조금씩 다르게 갱신된다. 상담자가 상상하는 내용 역시 상담자의 고유한 경험과 사회적 조건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기에, 상담자가 추측하는 '그녀' 라는 사람은 늘 그 상상력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오해가 거듭될수록 나는 그녀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 같다. 중요한 것은 그 오해의 순간에도 유지되는 '오해와 이해' 의 긴장이다.

A가 상담소에 오게 된 계기는 직업 소개소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소개받아 입주하기로 한 고객 한국 남성으로부터 감금과 폭행, 강간을 당한 사건이었다. 경찰

분명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고 강간치상이라는 죄명으로 고소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명이 변경되어 답답하고 해결책을 문의하러 온 A와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은 수사 후 이 사건을 강간 치상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수사 검사가 판단하길 강간 치상이 아니라

'상해' 라고 하여, 경찰에 지시하여 죄명을 변경하여 다시 송치할 것을 지시하였고 경찰은 그렇게 하여 다시 송치하였다. 당시 A는 검찰에서 '상해' 의 처분을 기다리는 상태였던 것이다.

분명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고 강간치상이라는 죄명으로 고소했건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명이 변경되어 답답하고 해결책을 문의하러 온 A와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사건 직후 신고하여 원스탑지원센터에서 증거 채취, 진술을 마치고 범인을 검거하였다. 경찰에 진술한 것은 감금과 폭행과 강간이었고 이는 A에게 동시에 일어난 피해였다. 폭행으로 A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강간하였고, 감금으로 더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던 것이다.

자신은 구분할 수 없는 당시의 피해를 세 가지 중, 상해만을 선택하여 기소하려는 검사에 대한 의아함과 분노,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그녀의 질문이었다. 검사가 왜 자기 마음대로 A의 경험을 세 가지로 나눠 그 중 하나만 골라서 피해로 선택했는지, 경찰의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확인해 본 결과 가장 큰 이유는 A가 가해자와 함께 살기로 동의하고 그 집에 갔다는 것이었다. 상해 사실은 조사 당시 가시적 증거가 남아 있어서 인정되지만, 강간은 이미 가해자와 함께 살기로 했기 때문에 '내연관계의 섹스' 가 되는 것이었다. A에게 확인한 결과, A는 직업 소개소에서 소개를 받아, 가해자의 집에 입주 가사도우미로 들어가 일을 하기로 했던 것이지, 그날 처음 본 사람과 같이 '살기로' 이야기할 리가 있다고 분개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경찰 조사 작성 시 진술했는데 왜 반영되지 않았는지 분개했다.

답답한 노릇이었다.

우선 그녀와 충분한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강한 조선족 억양과 빠른 말, 생소한 단어들을 이해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나도 그녀의 이야기를 알아듣고, 익숙해지면서 그녀의 말들이 조금씩 빨리 들어왔다. 상담소 지하의 면접실에서 몇 차례의 오랜 이야기를 통해

이야기를 할수록 느끼는 점은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는
경찰, 검찰의 질문에
그녀가 얼마나 취약했을까,
하는 부분이었다.

반복되는 그녀의 호소 내용, 그녀의 과거 삶, 앞으로의 비전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야기를 할수록 느끼는 점은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는 경찰, 검찰의 질문에 그녀가 얼마나 취약했을까, 하는 부분이었다. ‘듣고싶지’ 않으면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듣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듣기로 결심한다는 것은 이해하기로 결심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우선, A가 원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큰 손해가 갔으면 하는 것이었다. 내가 죽을 뻔하다가 겨우 탈출하여 신고했는데, 왜 경찰은 그 가해자를 잡아넣지 않느냐? 이럴 거면, 내가 누구를 믿고 탈출할 마음이라도 먹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였다. 24시간 가랑되는 시간 동안 감금된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면서도 탈출하려는 의지를 놓치지 않았던 것은 살고자 하는 마음이었는데, 이 절박한 자기 상태를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그녀의 이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은 그녀가 한국에서 기대되는 정체성과 맞닿아있다. 그녀는 중국에서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 왔고, 한국에 오자마자 고된 노동으로 돈을 벌어 일부를 중국에 있는 부모님과 딸에게 송금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식당에서의 서빙과 설거지, 호텔 청소, 가사 도우미, 전단지 붙이기와 같은 일을 하는데, 남편과는 같이 살고 있지 않다. 남편은 비자를 연장해줄 때에만 가끔 볼 뿐이고, 그 때에도 몇 십만원씩 돈을 주어야 비자 연장을 해 준다. 이러한 그녀에게 ‘위장결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한국 사회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그녀에게 늘 불편한 시선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가해자는 바로 이 점을 이용하여 협박하며 가해를 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 때에도 A에 대해 위장결혼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말의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이러한 가능성이 A를 대하는 경찰이나 검사의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역시 타진해볼 수 있다. 이러한 한국에서 자신의 위치가 A를 더욱 억울하게 하고, 분노스럽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A의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A는 자기를 모욕했던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은 강한 의지를 갖고 있

다. 이에 대해 그녀는 자기를 ‘굉장히 썩 여자’라고 표현한다. 그녀는 한국 여성들과 달리 자기는 중국에서 열차 승무원으로 근무했고, 중국에서의 열차 승무원은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고된 일이라고 하였다. 그녀는 내가 잘 모르는 열차 승무원의 지위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열차 승무원은 삼사일을 계속 기차에서 생활하는 것을 견뎌야 하는 고된 일로 강한 몸을 필요로 하는 일이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위험으로부터 열차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해야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그녀가 말 한 하나의 에피소드는 굉장히 멋졌다. 기차에서 한 승객이 소매치기를 당했다며 A에게 호소를 했다. A는 그 승객에게 범인의 얼굴을 기억하냐고 묻은 후, 기차가 역에 도착하기 전에 범인을 찾지 못하면 범인을 잡을 수 없으니 범인을 그 때까지 잡아오라고 했다. 잠시 후 범인이 나타났고, A는 범인을 호되게 야단친 후 돈을 받아내었다. 그러자 범인은 “내 뒤를 봐주는 조직이 있으니 너는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했다. A는 ‘눈하나 깜짝 안하고’ 그 길로 같은 열차를 타고 있는 경찰에게 찾아갔다. 그 경찰은 열차 승객들로부터 뇌물을 받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승무원들은 그걸 눈감아주고 있었고 A역시 그랬다. 그 경찰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말하고 “니가 그 새끼를 잡아 죽이지 않으면 니가 이제까지 받아먹은 뇌물이 하늘을 찌른다고 내가 상부에 다 보고하겠다”고 위협하였다. 경찰은 바로 그 범인을 잡아와서 꺾방치고(따귀를 때리고) 호되게 혼을 냈고 A에게 사과를 하도록 시켰다고 한다.

열차 승무원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한 이유는 그녀가 피해를 입던 날 당시, 심하게 몸살을 앓고 있어서 약을 지어 먹은 상태에서 몽롱하였고, 그랬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육체적으로 맞서기가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다. 그렇지 않았다면 자기는 가해자를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국 열차 승무원은 그런 사람이다. 나는 웬만한 장정이랑 싸워도 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A는 자신의 피해를 ‘성폭력’으로 절대화하기보다, 자신의 약점을 이용해 야비

하게 자신을 모욕했고, 자기 자신의 원래적 정체성인 '강하고 불의에 굴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훼손했다는 것을 못 견디고 있었다. 이것이 내가 느끼는 A의 고통의 회로였다.

그녀가 중국에서 열차 승무원이었고, 그녀가 기지와 깡다구를 발휘하여 가해자로부터 탈출했다는 것이 죄명을 바꾸라고 경찰에 지시한 검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그들에게는 별다른 유용한 정보가 아니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정보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녀가 피해 직전에 몸살을 앓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고, 그녀가 '입주 가사 도우미' 일을 하기로 했던 것이 '함께 살기로 했던 것'이 아니라는 진정을 한 후 검사는 A와 가해자를 불러 다시 조사를 시작하였다. 검사가 재조사를 시작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2,3 주 후 검사는 죄명 변경을 하지 않고 상해로 가해자를 약식 기소하였고, '더 항의하고 싶으면 그것은 민사 소송으로 할 것'을 권했다. A는 이 소식을 접하고 '중국에서는 성범죄가 얼마나 엄하게 처벌되는지 아느냐, 내가 한국인이어도

중국에서는 성범죄가 얼마나 엄하게 처벌되는지 아느냐, 내가 한국인이어도 이랬을 것이냐 ... A는 다시 강간 치상으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이랬을 것이냐 라는 A의 분노를 나누며 이야기를 하고, 상담소 자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이후, A는 다시 강간 치상으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A에게 현재 가장 중요한 일은 매일매일 일을 하는 것이다. 한국에 입국한 이유도, 딸의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한 것이 크기 때문이며, 동시에 매일 일을 해야 생계 유지가 가능하기도 하다. 하지만 그녀의 이러한 '한국에서의 존재 이유'를 방해하는 많은 장애물이 있다. 열악한 노동 조건과 환경과 싸우는 것은 녹록치 않은 상황에 그녀를 내몬다. 얼마 전 아파트에 전단지를 붙이다가 경비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가방을 빼앗긴 후 몸싸움이 붙어서 그녀는 경비로부터 폭행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다. '중국에서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한국에 오니 경찰서에 자주 드나든다.' 고 말하는 그녀는 얼마 전에는 임금이 체불되어 예전 직장의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한 상태이기도 하다.

그래서 늘 피곤해보이는 그녀에게 해야 할 말은 '좀 쉬세요'가 아니라 '돈 많이 버세요'라는 말이다. 오후에 일하시기 위해 상담 시간을 오전 일찍 잡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녀의 삶에서 '성폭력'이 가장 일순위의 해결 과제가 아닌 것을 아는 것 역시 그녀와의 만남에서 중요하다.

열악한 사회적 위치에 있고, 한국 사회의 사회 안전망의 취약한 지대에서 위태위태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A에게 피해의 이야기를 '잘' 듣기 위해서는 A가 갖고있는 굉장한 생에 대한 의지, 고집스러움, 자기 자신과 사회주의 국가인 모국에 대한 자부심, 중국에 있는 자기 준거집단에서 비롯되는 안정감과 같은 이야기들을 들어야 한다. 그것이 그녀의 '피해'의 의미를 점점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그와 동시에 역시, 다시 A의 성폭력 피해는 A가 놓인 복잡한 삶의 맥락 속에서 고유하게 구성되고, 그것을 이동시킬 힘 역시 A 안에 있음을 확인한다.

A가 느끼는 '고통'의 내용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그리고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한' A의 노력과 A가 가진 자원들은 이후 상담소에서 성폭력을 호소하는 여성들과 만날 수 있는 내용을 풍부히 할 수 있는 좋은 참조가 될 것이다. 성폭력을 둘러싼 여성들의 맥락을 드러내고, 성폭력이라는 경험이 개인 여성들 사이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해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여성이라는 범주가 단일하지 않고, 따라서 다른 여성들의 '고통'의 내용 역시 변화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폭력 피해 경험을 드러내는 것은 고통의 맥락을 드러내어 그 고통을 해체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곧 삶이기도 할 것이다. ☹

*이 글은 A의 동의를 얻어 나눔터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편집자주] 생존자의 목소리 코너는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투고로 연재 혹은 단회, 독자들과 만남을 갖습니다. 글 보내주실 곳은 ksvrc@chol.com입니다. 이번 호에는 '水'의 연재수기 여섯 번째 이야기가 실립니다.

연재 6th

초경통

◎ 水

‘이상하다 입맛이 왜 이리 좋지? 요즘은 특히 양푼에 비벼먹는 비빔밥이 최고란 말이지, 두세 그릇도 푹푹 먹어버릴 수 있단 말이지’

어린 마음에 키가 자라려니 생각하고 내심 기분이 좋았다. 친할머니, 내가 무엇 하나 그 여자의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무생채를 만나게 무쳐주면 그걸 좋아했다. 그 해 여름은 아무튼 비빔밥을 엄청 먹어댔다. 그러던 어느 날은 너무 먹었는지 갑자기 ‘욱’하고 토해버렸다. 미련스럽게 너무 많이 먹는다는 친할머니의 핀잔을 뒤로 한 채 수도가에서 먹은 걸 다 게워냈다.

그때 그는 뭔가 짚이는 게 있는지 이상한 질문을 했다.

“너 요즘 입맛도 너무 좋고, 토할 것 같곤 하니?”

나는 왜 저런 걸 묻나 싶으면서 한편 무언가 알 수 없는 불안이 느껴졌다.

갑자기 밥맛이 푹 떨어진다.

그 사람은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나를 붙잡고 교육을 했다. 걱정하고 있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지만, 나는 안다. 그 사람이 임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아이를 지을 것과 병원에서 무어라고 초등학교 6학년 아이의 임신을 설명해야할지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짓을 내 앞에서는 당당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든 숨기기 위한 그의 변명과 거짓말들을 내 앞에 늘어났다. 왜 그런 짓거리를 하는 지, 내가 괴워한다는 건 아는지.

“아무래도 임신을 한 것 같아, 그러니 병원에 가서 검사부터 해보자, 만약에 임신이면 수술을 받아야 할 텐데..... 만약 임신이라면, 그래 너 지난번에 산수경시대회 갔었잖아, 그때 늦게 집에 오다 길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당했다고 하자, 그때쯤이라고 하면 될 거야.”

나는 늦은 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 짓을 당해 출지에 임신까지 하게 된 초등학교 6학년이 된 것이다.

어떻게 초경도 하지 않은 내가 임신을 하게 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절대로 임신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양호선생님도 그렇게 말했던 거 같고, 어디선가 듣거나, 읽었던 것에서도 생리를 하는 사람이 임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정말, 그게 과학적인 거고, 그렇게 되어야 정상인 것이고, 진리인 것이다. 그런데 왜 나한테 이렇게 비과학적이고,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렇게 스토리를 짜면 너무 작위적이라고 할 판인데, 이게 실제 인생이라니.

그 교육을 며칠 동안 한 후, 하루는 병원에 가야하니 학교에 가지 말라고 했다. 동생들도 학교에 가고 집이 비었다. 그 사람은 언제나 그래야 한다는 듯이 그 짓거리를 위해 이부자리를 폈다.

“한번 하고 가자, 한참 못할 수도 있으니까”

오전에는 그 짓거리 하고, 오후에는 산부인과에 데리고 갔다. 산부인과에 들어가서는 나보고, 병원 화장실에 가서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고 검사를 받으란다. 아까 한 그 짓거리가 걱정되었던 모양이다. 더러운 놈. 나는 싫다, 내가 동조하는 것도 아닌데, 꼭 공범처럼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내가 숨기도록 하는 요구가 정말로 싫다. 아무튼 씻는 시늉이라도 해야 해서 화장실에 들어가 앉아있었다.

산부인과 병원에는 다양한 높이로 배가 나온 아주머니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나같은 꼬맹이가 왜 산부인과에 왔는지 의심스러운 모양이다.

쳇, 기분이 나쁘다.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구요, 아빠가 나에게 어떤 짓을 하는지 알기나 해요?’

큰 소리로 말해주고 싶다. 아무튼 왜 내가 여기에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순서를 기다렸다. 그는 연신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잘 말해. 아까 말해준대로’ 라고 지겹게 지껄었다. 그러나 겉모습은 인자한 아버지인양 딸애를 걱정되고 안쓰러워하는 표정이다. 그럴 때면 나는 그의 얼굴껍질을 벗겨 버리고 싶은 정도의 감정을 겪어야 했다. 그 감정은 증오, 미움 등으로 표현하면 너무 약해지고, 작아져버릴 그런 정도의 것이다.

드디어 순서가 되어 의사 선생님을 만났다. 남자였는지 여자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의사는 대뜸, ‘임신이네요, 어찌다 이렇게 되었나요?’ 라고 그에게 물었다, 내가 아니고.

그는 딸의 성폭력과 임신을 대사하나 틀리지 않고 연습한대로 읊었다. 그러면서 아이 엄마는 지금 많이 아픈데, 이 사실까지 알면 정말 위독해질까봐 절대 알릴 수 없어서 아빠인 자신이 어쩔 수 없이 데려왔다는 마무리까지 완벽했다. 저 말은 연습할 때도 없었는데, 어쩔 저렇게 말하면서 거짓말이 완성이 되는지 신기했다. 의사가 엄마가 아닌 아빠와 산부인과를 찾아온 사실을 의심할 것에 대한 방어막까지 완벽하게 구축한 셈이다.

그런데 임신사실 여부를 알고, 초음파를 보면서 의사가 말했다.

“그런데 아버님이 말한 그 시기면 아이가 이렇게 크지 않을 텐데요, 아까 말씀하신 기간으로 하면 이제 겨우 8주여야 하는데, 지금은 12주가 넘는 거 같은데요.”

순간 잠깐의 정적이 흐르더니 그는 의심의 눈초리를 나에게 보낸다. 속으로 '너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라는 의심 가득한 표정과 함께, "또 다른 일도 있었니? 어떻게 된 거니?" 더 이상 숨기지 말아라, 아빠가 다 이해한다 뭐 이런 표정. 기가 막히다가 맥이 풀렸다. 나는 졸지에 행실이 좋지 않은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딸의 모든 잘못을 끌어안으려 노력하는 아빠라도 되는 것처럼 언제 누구에게 그랬건 문제도 없다는 듯, 임신중절에 대해 의사와 의논하기 시작했다. 의사는 자기네 병원은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곳이어서 임신중절이 안 되니 다른 병원을 소개해주겠다고 했다. 다른 도시에 있는 병원을 소개해주었다. 나는 또 그 사람에 끌려 다른 산부인과에 가야했다.

여기서도 나는 행복하게, 다양하게 불러있는 배를 가진 아주머니들 틈에 생똥맛은 표정으로 앉아있었다. 꼭 엄마 따라 온 것처럼, 내가 산부인과 환자는 아닌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말이다. 그러나 어김없이 내 이름을 불러졌고, 나는 의사 앞에 앉았다. 의사는 이미 이전 병원 의사의 소견서와 초음파 사진 등을 통해, 더 이상의 궁금증도 없는 듯 했다. 일단 오늘 당장 시술부터 하자고 했다. 태아가 너무 자란 상태여서 그냥 수술이 안 되고, 약물을 넣어 돌려 넣는 시술을 해야한다고 했다. 나같이 조그만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임신 12주 이상이 되어 아이를 지워야한다니. 남의 이야기로 들어도 힘들만한 일들이 나에게서는 늘 나 자신에게 일어난다.

의사는 인자한 인상을 가진 중년 남자였다. 남자 산부인과 의사라 싫어라 할만도 한데, 나는 그런 것보다 마냥 고마웠다. 이 더러운 걸 내 몸에서 꺼내줄 것이란 사실만으로 말이다. 의사 아저씨는 어린 아이여서 걱정이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을 했다.

낯선 산부인과 시술대, 어른이 되어서도 늘기 싫어한다는 산부인과 시술대에 누웠을 때조차도 나는 무서움보다 빨리 끝나기를 바랐다. 잠시 무언가를 내 몸속에 넣는 것 같더니 집에 가서 하루 자고 내일 다시 오라고 했다. 뭘지 모르지만 아팠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니 엄마한테는 너 심장이 약해서 병원에 검사 다녀온다고 했으니깐 허튼 소리 하지마. 그런데 나는 속으로 너무 걱정했다. 니가 아이 안 지우고, 낳는다고 할까봐, 고마워, 지금은 지운다고 해줘서. 나중에 어른되면 그때 내 아이 가지면 되지, 외국에 나가서 내 아이 낳아서 살고 있으면 되지. 내가 한국에서 왔다갔다 할께"

웬 뽀소리니 싶다. 병원에 입원해있던 엄마에게까지 거짓말을 해놓고, 내가 지 놨의 아이를 지운다고 안 할까봐 걱정하다니,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왜 니놈 아이를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키우고 사니? 정말 나의 정상적 사고구조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기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사람도 아닐테지.

집에 돌아와 보니 친할머니는 무슨 호강에 병원까지 만사 다 제쳐두고 모시고 갔다 왔냐고 한다. 자기도 아픈데 병원 가야한다면서.....웃기는 모자다.

그런데 아까부터 배가 살살 아픈 게 심상치 않다. 조금씩 점점 더 아파지는데 두렵다. 이리다 집안 식구들이 모두 알게 되는 건 아닐지. 갑자기 집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건 아닌지. 아까 병원에서 시술을 해주고 난 후 내 몸속에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내 몸속에 있는 게 벌레 같았다. 그래서 그 벌레를 빨리 내버리고 싶었던 거다. 그 벌레는 나뉘는 생명을 유지하고 싶는데, 지우려 하는 내 몸속에서 발버둥을 치고 있었던 모양이다. 배를 누군가 속에서 후벼파는 듯 쓰러왔다. 아래로 무언가가 밀고 나오려 했다. 참아야 한다고 의사 아저씨는 말했는데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배가 아래로 다 쓸려내려 오는 듯 했다. 나는 화장실에 가서 몸 밖으로 무언가가 쏟아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이제 끝이구나 싶다. 이제 나갔구나. 내 몸의 불순물이 나갔구나. 나는 이게 정말 끝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의사 아저씨를 만나러 갔다. 나는 대뜸 의사 아저씨에게 시원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어제 화장실에 갔더니 뭐가 쏙하고 나왔어요.
저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얼른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어린 아이의 심정이 오죽했을까 싶다.
의사 아저씨는 시술대로 누워보라고 하신 후, 살펴보시더니 안색이 어두워졌다.

*“아무래도 오늘 입원해야겠다. 아프겠지만 참아야겠는데, 어제 넣어준 약이 나와서 다
시 시도해야할 것 같다. 배가 많이 아프겠지만, 내일이면 끝날 거다.”*

이대로 시술대 위에서 배를 갈라서라도 빨리 꺼내달라고 말하고 싶다. 정말 내 속에서 그 인간과 관련된 무엇이 꿈틀거리고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계다가 죽지 않으려고 저리고 버티고 있는 것이 징그러웠다. 꼭 그 사람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간호사 언니가 나에게 산부인과 환자복을 입으라고 가져다주었다. 어린 것이 참 안되었다는 표정과 어떻게 하고 다녔길래 저렇게 어린 아이가 임신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동시에 담긴 얼굴을 계속해서 마주하는 게 힘들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언제쯤 말 할 수 있을까?

그는 계속해서 이중인격자로 행동했다. 의사 아저씨와 간호사, 다른 환자들 있는 곳에서는 딸애 때문에 걱정되어 죽겠다고 했고, 애 엄마까지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아빠인 자기가 이런 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소연했다. 분명 저 존재는 사람이 아닐 것이다. 나중에 커서 알게 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아버라는 사람은 ‘약’ 그 자체인 것 같다.” 약 그 자체라, 순수한 약? 그래

그 사람은 순수한 악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다. 아무튼 그는 1인용 병실을 빌렸다. 돈도 없고, 어려운데 왜 그랬겠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라도 할까봐 일초도 내 곁에서 떨어져 있지 않았다. 1인용 병실로 들여다 놓고서야 안심하는 듯 했다.

그는 “정말 니가 순순히 중절수술 받겠다고 해줘서 고맙다. 니가 애 낳는다고 폐쓰면 어쩌나 너무 걱정했었는데. 아무튼 의사나 간호사한테 쓸데없는 말하지 말고.”

정말 ‘순수한 악’ 이나 생각해낼 수 있는 말들이다.

아까 의사 아저씨가 또 다시 내 몸 속에 무엇을 밀어 넣었는지 배가 끌려 내려오는 듯한 느낌이 주기적으로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배가 아픈 정도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두워지는 밤하늘처럼 내 배 속이 검게 썩어가는 듯 쓰리고 아팠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통증을 체크하러 오는 간호사 언니의 방문이 잦아졌다. 그만큼 나의 통증은 깊이를 더해갔다. 배속에서 칼을 든 작은 악마가 춤이라도 추고 있는 모양이다. 처음에는 소리를 안 지르려고 입을 꼭 다물고 있었는데, 어느새 나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었다.

“배 아파, 아프단 말이야, 아~악! 나 안 아프게 해줘.”

나중에는 ‘배’ 라는 단어도 제대로 발음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제는 순간순간 정신을 놓았다가 깨어나고, 겨우 신음소리를 내지르다 또 까무라치기를 반복했다.

“의사 불러줘, 악! 그리고 다음부터 나한테 이리지마.

다음에는 제발 하지마, 제발, 너무 아파”

그 사람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또 부탁했다.

그는 알았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정신에도 그 사람이 하도 무서워 간호사가 없을 때만 부탁했다. 나는 또 정신을 놓았다.

극심한 고통 때문에 눈이 떠졌다. 입원해서 지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을 텐데, 나는 열 달은 거기에 누워있었던 것 같다. 나는 간호사 언니에게 계속해서 부탁했다. 빨리 의사 아저씨한테 꺼내 달라고 얘기 좀 하라고. 밤새 엄청 소리를 질러댔던 것 같은데, 간호사도, 의사도, 다른 환자들도 조용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아무튼 세상에 태어나 그렇게 소리소리 질러본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다. 간호사는 계속 아직 수술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기다려야한다는 말만 반복했다. ‘정말 아이를 낳는 거구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저 인간 때문에 겪어야해? 죽어버릴거야, 이 배속에 것도 죽이고, 너도 죽어버릴거야.’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 통증이 좀 풀어졌다.

의사 아저씨는 수술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고, 친구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금방 다녀온다며 나가셨다. 간호사에게는 초상집이 가까우니 급하면 언제라도 연락을 하라는 말도 남기셨다. 간호사는 몇 시간 후면 바로 수술을 하게 될 거라며 나를 위로했다. 사실 나에겐 그때 시간의 흐름이 없어진 상태였다. 시간이 나를 고통 속에 멈춰 세운 것 같았다. 소리 지르다 기절하고, 수십 년은 지난 것 같은 암흑 속에서 다시 깨어나기를 반복했다. 창백이 점점 새까맣게 되어가는 것을 보며 밤이 깊어가는 걸 알았다. 수십 번은 더 기절했다 깨어났을 때 의사 아저씨가 와서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 아저씨는 무척이나 안쓰러워하며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고 하셨다. 의사 아저씨는 1회용 비닐장갑을 끼고 내 몸속에 있는 것의 나을 기미를 살폈다. 내 마음은 이미 활짝 열어 내보내고 싶은데, 동물적 모성과 생존의 욕구를 가진 생명체는 나의 중요성과 힘겨루기라도 하나보다. 나는 '이건 진짜 애를 낳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다. 마음은 무섭고, 두려우면서도 내 몸은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죄책감으로 진이 빠지고 있었다.

그 사람은 내가 중간 중간, '제발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줘, 너무 아파라'며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고개만 끄덕일 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나보다는 자신의 생명체가 신경 쓰였던 것일까? 잠시 후 그는 조그만 곰인형을 사다주었다. 그의 설명은 '아기 지우고 나면 죄책감이 든다는데, 인형한테 잘 해주며 풀라'는 뭐 그런 내용이었던 거 같다.

아무리 배가 아파도 속으로는 계속 욕을 하고, 미워할 수 있었다. 재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런 이상한 생각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

또 시간이 흘렀다. 더 이상은 소리도 못 지르고, 계속 신음소리를 내다 기절하기를 반복했다. 갈수록 기절했다 깨어나는 시간이 짧아졌다. 그때를 떠올려 보려하면 잘 떠오르진 않지만, 그래도 생생한 것은 완전히 정신이 나가기 바로 전, 의사 아저씨와 몇 명의 간호사 언니들이 와서 나를 바퀴가 달린 침대에 태워 밝은 빛이 가득한 방으로 옮겨 간 것이다. 굶은 주사 바늘들을 내 팔에 마구 꽂았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어스름하게 새벽이 되어 있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주기적으로 찾아오던 통증이 멈춰 있었다. 그런데 내 몸의 한 부분이 무리하게 찢겨진 듯 했다. 커다란 기저귀가 채워져 있다.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이 수술이 이루어진 모양이다. 괜히 '아기가 얼마나 컸는지' 물어보고도 싶었지만 참았다. 그 사람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았다. 혹시 '애가 내 아이가 보고 싶었나? 내 아이에게 애정이 있었나?' 오해할까봐 그냥 묻지 않았다. 피로 흥건히 젖은 기저귀를 차고 누워있는 나.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이 내가 제일 정확하게 기억하고, 확인하고 싶은 순간일 때의 답답함을 아는가? 내 상태를 체크하러 온 의사 아저씨와 간호사 언니에게 물었다.

“정말 끝났어요? 정말 나왔어요?”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힘들테니 꼭 자라고 했다.

1인용 병실로 돌아와 또 다시 그와 있어야 하는 것이 괴롭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하는지 도

음도 청할 곳 하나 없이, 말을 못하는 것도 아닌 내가, 학교에서 발표도 잘하는 내가, 그놈의 더러운 짓거리에 대해서만큼은 협박과 구타로 인해 병어리가 되었으니 답답하고, 또 답답했다. 나는 병실에서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다시는 이렇게 나를 만들지 말아달라고, 제발 다시는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그러자 그는 알았다고 하며 일단 자라고 했다. 그 말에 안심하고 적어도 오늘밤은 더러운 짓 없이 지나갈 수 있겠지 싶은 마음에 몸도, 마음도 침대에 녹아들어가듯 잠이 들었다. 잠 잘 때는 내 의식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시간이다. 그래서인지 나는 죽은 듯, 내 정신을 그가 존재하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는 것처럼 잠을 잤다.

아침이 되었다. 아침식사로 미역국이 나왔다. 산모였던 거다. 누가 뭐래도 내 몸은 산모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메뉴는 정확히 기억난다. 의사 아저씨는 병실에 와서 이제 좀 어떠냐고 하시더니 자기 운전기사에게 말해두었으니 퇴원해서 집까지 자기 차를 타고 가라고 하셨다. 의사 아저씨의 친절함에 순간 '도와달라고 얘기할까?' 싶은 생각이 스쳤다. 이제 또 집에 가면 그 짓을 하지 않겠다던 약속은 없었던 것이 될까봐 겁도 났고, 도움을 청하면 어떻게든 도와주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다. 그런데 한편 겁도 났다. 친아빠가 친딸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인 지금까지 거의 매일 강제로 그 짓을 한다는 게. 일반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 할 이야기라 나도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할지 몰랐다. 아빠라는 사람은 이런 내 눈빛을 읽었는지 고맙다고 하며, 우리 딸에한테 신경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등, 앞으로는 우리 애가 저런 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며 안쓰러운 나를 부축하는 척 하며 병실에서 끌고 나왔다. 운전기사는 아무 말 없이 나와 그 사람을 집 앞에까지 태워다 주고 가셨다. 차 안에서는 어떤 말을 나누었는지 기억은 없지만 가증스러웠다는 느낌은 남아있다.

차에서 내려 일어서는데 순간 온 땅의 기운이 내 뺨속을 끌어내리려는 것 같았다. 나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부축을 받으며 겨우 걸었다. 어른들이 말하는 '밑이 빠질 것 같다'는 말이 이런 감각일까? 뺨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쏟아져 내릴 것 같았다. 커다란 기저귀를 채워두었지만, 그것이 막아낼 것 같지 않다. 계속해서 출혈이 있다.

잊을 수 없는 통증을 남긴 채 초경이 시작되었다. ☹

(다음호에 계속)

■ 수의 한마디

그 날 이후 죄책감, 생명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한동안 시달렸었다. 길에서 지나가는 아이들만 봐도 미안하고, 죄스럽고 그랬다. 어떤 이유에서건 낙태는 안 된다는 종교인들의 말을 들을 때면 당신이 나처럼 더러운 꼴 당해서 아이 가져보라고 욕지거리라도 하고 싶었다. 세월이 흘렀다. 세월과 함께 내 속에 찾아왔던 따뜻하고, 사랑 깊은 친구들의 애정과 보살핌이 내 속에 죄책감과 세상을 향한 분노심을 조금은 씻어주었나 보다. 그냥 사람은 다양한 결정을 하고, 각자의 모양대로 살다 가는 것이겠지. 낱을 사람은 낱고, 떠나보낼 사람은 보내고, 예전에 영화 "노스컨츄리"에서는 성폭력을 당해 갖게 된 아이를 사랑으로 키워내는 주인공을 보았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해할 수도 있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다고, 다른 사람도 그래야 하는 건 아니니까. 대학원에 다닐 때, 생명윤리강의시간 낙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자료를 보고 준비했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웃긴다. 내가 생명을 떠나보낸 것에 대한 죄책감을 떠나보내는 건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닌 듯 하다. 나 자신이 못 된 것처럼 느껴져도 그때의 나는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진심을 담아 울면서 보듬어주면 그만인 것을.

열림터 사는 이야기 _ 첫 번째 이야기



참석자 : 통통, 더미, 동지, 바리, 하늘, 거북, 사자, 오매
사 회 : 활동가 오매
정 리 : 활동가 사자

[편집자주] 열림터에서 식구들이 모두 모여 앉아 열림터에서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열림터에 들어오던 날 들었던 생각, 생활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등 솔직담백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요, 앞으로도 더욱 솔직담백할만한 이야기 자리를 계속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글은 열림터인들의 좌담,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매 열림터 좌담회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림터에 대한 열림터인들의 생각을 나누어보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어요. 나눔터를 통해서 표현하는 자리가 거의 처음이고 그래서 의미가 있는 자리인거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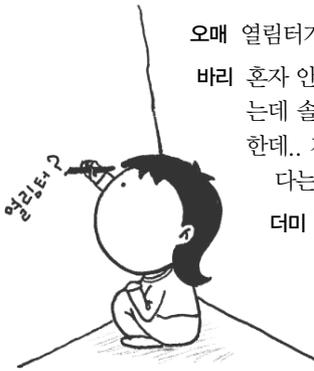
1 열림터 들어오던 날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 통통** 굉장히 좋았구요. 처음에 헤옥샘을 봤는데요. 제가 아는 분과 닮아서 굉장히 친근했고 지금도 살면서 만족스럽고 좋았어요. 첫인상은 대개 보호해 줄 수 있는 느낌.
- 하늘** 뭐가 어떻게 좋았어?
- 통통** 서울에서 살고 싶었구요. 여러 가지로 좋았어요. 설레고.
- 오매** 누구랑 같이 왔어요?
- 통통** 작은 엄마요.
- 오매** 하늘은 어땠어요?
- 하늘** 처음에 사자샘을 봤어요. 열림터 오기 전에 바로 핸드폰 정지를 풀었는데 오자마자 바로 뺏긴 거예요. 처음에 너무 당황했구요. 어떻게 열림터 식구들하고 친해질까 많이 낯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집에도 가고 싶었고, 다른 쉼터에 가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사자샘이 한 달만 같이 지내보자 그랬어요...
- 더미** 맨 첫날에 제일 힘들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을 줄 알았고, 엄마도 안 보고 싶고 그럴줄 알았는데 앉아서 tv보고 있는데 대개 낯설잖아요. 눈물이 날거 같은 거예요. 낯설고 하니까 다른 애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데 너무 낯설고 그때 참 힘들었어요.

동지 저도 더미랑 같은 생각을 했어요. tv에 나오는 시설 같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 상담소에서 이야기하는데 심터가 어디 있는지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처음에 되게 낯설었어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적응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바리 저는 경찰분이랑 같이 왔었어요. 그때 너무 상황이 힘들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어쩔 수없이 오긴 왔는데 이런 상황 자체가 싫은 거예요. 비밀로 된 공간이긴 하지만 아는 사람 만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안 좋게 생각을 많이 하고 들어왔어요. 그때는 얘기가 있었어요. oo를 보고 되게 놀랐어요. 저렇게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내가 겪은거는 그렇게 큰 거는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처음에는 적응을 잘 못하고, 이런 곳에서 도움을 받는 자체가 부끄럽고 되게 싫고 그랬어요.

열린터는 내게 어떤 의미일까?



오매 열린터가 좋은 면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건가요?

바리 혼자 안 살고, 무슨 날이면 챙겨주는 게 좋았던 거 같아요. 저 취직했을 때 상품권 주셨는데 솔직히 저 감동 먹었어요.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구나 생각이 들면서 씁쓸하긴 한데.. 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말할 사람이 있고, 물어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덜 외롭다고 해야 되나

더미 저는요 선생님들이 좋았던 거 같아요. 여기 와서 과외도 하고 통통이랑 친해지고 사람들이랑 친해지다 보니까 열린터도 좋아지고 그런 거 같아요.

오매 그게 열린터의 특징 같은 거예요?

더미 특징이요? 사무실 선생님들도 좋고, 여기 선생님들도 좋고.

오매 그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 거 같아요?

더미 이렇게 대개 좋은 사람도 있구나 그런 것도 느꼈고 좋은 기운들을 많이 받은 거 같아요.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여기 와서 좋은 기운, 밝은 기운 그런 거 있잖아요.

오매 좋은 기운이라고 하면, 어떤 장면을 떠올려 본다면?

더미 식구들하고 다 같이 밥 먹으면서 통쾌한 웃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집 같고.

통통 첫 인상에서 더 좋았구요. 언니가 말한 것처럼 선생님들이 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그런 거요. 여기서 집에서 할 수 없었던 과외나 그런 거 대개 많이 해 주셨어요. 여기서는 용돈을 주잖아요. 그런 것도 좋았고, 여행도 가고.

하늘 저희 집은 서로 엄마 아빠가 거의 말도 안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일 가고 여기에서는 학교 갔다 오면 챙겨주는 선생님도 있고 착각일 수 있지만 나만 그렇게 해 주는 느낌도 들구요. 저는 워낙 공부를 싫어하니 공부할 마음이 없었는데 선생님 이 기초적인 거라도 알아서 고등학교 가야 된다고 하시고, 여기 오기 전까지는 아무 생각도 없이 살다가 나이 먹어서 그냥 어떻게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동지 선생님들이 사소한 거라도 관심을 많이 주시는 거 같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한 거 보다 여기 와서 해본 일이 더 많은 거 같아요. 어른이라고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모른 척 안하고 똑같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래서 더 조심을 하게 되는 거 같아요.

1 열림터에서 사는 스트레스...

- 오매** 혼자 살았을 때보다 규칙들 때문에 공동생활 하다 보니 오히려 제약이라고 느껴지는 것도 있었을 텐데.
- 통통** 여기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수증을 끊어야 되잖아요. 몇 백원, 몇 천원 짜리도 '다 영수증 주세요' 가끔 그런 말도 들었어요. 엄마가 너를 못 믿으시냐고? 그런 말 들었던 게 약간 불편하고 그랬어요.
- 하늘** 솔직히 나이가 어리고 그래서 빨리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돼요. 어제도 짝토(짹수 토요일에 모이는 축구 모임) 가서 축구하다가 늦어서 좀 혼날까봐 걱정을 했어요.
- 오매** 어리니까 일찍 들어와야 된다는 게 고정관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선생님하고 통금을 늦춰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 하늘** 지금은 자신이 없어요. 사자선생님한테 혼날까봐
- 오매** 너무 늦게 들어오면 걱정되고, 그러는데
- 하늘** 근데 통통은 밤에 이쪽 길 혼자 다녀도 안 무섭대요.
- 통통** 안 무서워요.
- 둥지** 시간이 정해져서 그 시간에 맞추어 들어오려고 빨리 빨리 하는 거 같아요.
- 둥지** 식사 당번은 정해져 있으니까 다들 해요. 그런데 이 날은 니 당번이니까 너만 해라 이러면 안 좋은 거 같아요. 서로 너무 이기적이 될 거 같아요. 자기 날이 아니라도 조금씩 도와줄 수도 있는데 서로 좋은데.
- 바리**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하기는 싫어요. 안 도와주자니 인색한거 같고, 도와 주는 건 귀찮고, 그런데 안하고 있으면 선생님들 눈치는 보이고.
- 둥지** 저도 그런 부담 들어요.
- 바리** 눈치가 보이죠.
- 둥지** 애들이랑 똑 같이 굴면 안된다. 선생님 들어오시기 전에 치워 놓으려고 하고.
- 하늘** 언니들만 하니까 안 하면 눈치가 보여요.
- 둥지** 애들도 마찬가지로 일 거 같아요. 언니들만 하니까 언니들은 착하다는 소리 듣고
- 하늘** 열림터에 와서 어디 갈 때마다 누구를 만날 때 왜 물어보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 오매** 어디 갈 때 왜 물어보는지?
- 통통** 다 물어보지 않나? 엄마 아빠도. 궁금하잖아.
- 바리** 걱정되잖아.
- 하늘** 걱정이 돼서 할 거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거 같은데...
- 오매** 너 어디 사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있잖아요.
- 통통** 이모네 산다고.
- 바리** 나도. 이모가 맨날 바뀌지요.
- 하늘** 난 엄마 아빠 빼놓고는 아무도 몰라요.



동지 저는 혼자 산다고 그래요.

오매 이런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통통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여성에 관한 활동하면 알려도 될 거 같애요.

바리 그 일은 나한테는 사교잖아요.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은 너무 불쌍하게 보잖아요. 모르니까 그런데 그게 싫은 거예요.

1 열린터는 어떤 가족일까?

오매 집 같거나 가족같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열린터를 대안적인 공동체라고 기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식구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매 가족이란 말을 쓰지만 혼자 살 수도 있고, 꼭 피로 맺어진 사람들 말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과도 살 수 있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가족을 꾸릴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하늘 열린터에 오니까 먼저 챙겨주고 다가오고 그러니까 가족이란 걸 느꼈어요. 집에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들은 자기 일만 하는데 열린터에서는 아무리 바빠도 서로 챙겨주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가족인 거 같애요.

더미 피가 섞인 가족은 아니잖아요. 가족 같은 편안함은 가족끼리 있으면 막 화내고 막말하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아무래도 조심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편안함 같은게 없어서 가족 같지 않다고 느껴졌어요.

바리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밖에서 짜증이 나서 들어왔는데 집에서는 식구들한테 짜증을 내거나 엄마가 받아주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서는 짜증을 못 내고 삭히는 게 힘든 거 같기도 하고 내가 짜증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외롭기도 한 거 같고

통통 저는 항상 같이 하나니까. 같이 밥 먹고, tv보고, 같이 웃고, 같이 하는 시간도 많으니까 더 가족 이라는 느낌을 가졌던 거 같애요.

오매 짜증도 부리고 신경질도 부리고 그러고 싶을 때는 없어요?

통통 엄마는 자그마치 16년이나 같이 지냈잖아요. 선생님하고는 아직 1년도 안 되는데 선생님이니까 약간 부담감(?) 투정을 부리면 웬지 안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늘 엄마한테는 투정도 부리고 그러고 싶은데 여기에서는 같이 사는 가족이 아니니까 누구한테 기대야 할지, 기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그냥 웃으면서 놀면서 넘어가요.

오매 가족이 아니라서 한계가 있는 어떤 게 있는데 열린터에서 어떻게 해 보면 좋을지 생각이 드는 게 있는지?

동지 다른 사람한테 짜증을 내면 그 사람도 짜증날 거 같아요. 그래서 서로 조심해야 할 거 같애요.

오매 열린터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푸는지? 열린터 선생님들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든 해요?

하늘 저는 그냥 선생님들한테 가서 얘기하는데요? 특히 오매선생님한테.

오매 해결하지는 못하잖아요.

하늘 그래도 설명을 해 주니까 이해를 해요. 누구한테 잘 이야기 하고 나면 속이 좀 시원하잖아요.



오매 혹시 클리닉(심리상담클리닉)에서도 안에서 쌓였던 이야기 풀고 오기도 해요?

통통 요새 혜옥쌤 하고 1주일에 1번씩 상담을 하는데요. 클리닉에서도 상담을 하고 그러니까 사소한 문제들 딱히 눈에 보이는 거는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오매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없었다는 거?

통통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 우리가 가족회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협의 내용 할 때도 있고 건의함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충분히 풀 수 있는 거 같아요.

오매 본인은 어때요? 몇 퍼센트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족회의에서 하는 거 같아요?

통통 저는 말할수는 있는데요. 딱히 나쁜 거가 잘 안 보여요.

데미 저는 말 못하겠어요. 그냥 혼자 있어요. 통통이랑 방 같이 쓸 때는 잘 때 이야기를 하든가. 클리닉이나 선생님한테는 고민 이야기 하나까 그거는 괜찮은데 잘못된 당사자한테는 쉽게 이야기를 못하는 거 같아요. 기분 나빠할 것 같기도 하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오매 그거는 열림터이기 때문이에요?

데미 아니, 원래 그래요.

오매 내가 그렇게 변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있는 거 같진 않아요?

데미 아니, 많은데. 머리 속에 싸매고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잘 안돼요. 그냥 넘어가게 되고.

오매 누구랑 통통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거 같아요?

통통 사람마다 틀릴거 같아요. 선생님이라면 웬지 어른이잖아요. 약간 말하는 게 곤란한 것도 있고. 또래라면 차차 없이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 같고. 언니 같으면 언니라서 말하기 좀 어렵고.

등지 클리닉에서 그런 연습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 연습 중인데 아직 잘 되진 않아요. 생각은 하는데 얘기는 못 하지요.

바리 저도 클리닉 가서 이야기 해요. 저는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런거 못해서 지금은 연습도 하고 숙제도 내 주고 해서 많이 표현을 하려고 해요. 그런 연습을 열림터에서- 선생님도 이해를 하고 받아줄 수 있으니까. 많이 받아 줄 수 있잖아요. - 많이 해 보라고 하는데 하기가 좀 힘들어요.

사자 화나거나 어렵거나 섭섭하거나 이런 것들이 서로 잘 이야기가 되어야 어떻게 같이 해결해 나갈까를 찾을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너무 어렵고 편하지가 않아서 말을 못하고, 어렵지는 않지만 웬지 말하기가 편 편치 않다 하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까 고민이 되는데.

통통 제 생각으로는 일단 선생님한테 요구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선생님이 가끔이라도 먼저 안 좋은 일이 있냐고 물어봐 주시면.

통통 그 말을 좀 삭히고 있으면 그럴 때마다 선생님이 물어봐 주고, 가끔 장난식으로 너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장난식으로 고쳤으면 하는 거를 표현한 적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게 돼요.

오매 근데 물어보기 전에 자기가 필요하면 먼저 이야기하는게 더 멋있는건데..

통통 그럼 좋지만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오매 어떤 모습으로 열림터에서 나가고 싶어요?

통통 언제 나갈지 모르지만 여기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3년 동안 선생님 속 안 썩이는 예쁜 통통이로 잘 살다

가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일자리도 얻어서 자랑스럽게 나가고 싶어요.

하늘 제가 나가서 사회에서 적응 잘 하고 진짜 자신감이 생겼을 때 당당하게 해서 나가고 싶어요. 많이 배워서

4 열린터 식구들이 말하는 열린터는...

오매 마지막으로 열린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거나 추천을 한다면 뭐라고 표현하고 싶은지?

하늘 집이랑 별 차이 없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더미 뭔가 하고 싶은걸 할 수 있고, 내 장점을 발견할 수 있고, 대개 편하고 살기 좋은 곳

통통 너무 좋고, 열린터의 장점이랑 좋은걸 몽땅 다 말하고 싶어요.

바리 마음이 쉴 수 있는곳. 힘든 일을 겪고 온 거잖아요. 계속 무서웠어요. 여기 있는 동안은 악몽도 안 꾸고 집에 혼자 있을 때 누가 문 열고 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런 공포 이런 것도 있었는데 여기 있으면서는 없어진거 같아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닌건 같지만 여기 공간은 그런 생각도 안 들고 대개 편하고.

동지 저는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곳이라고. 제가 이전보다 많이 달라졌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도 제가 달라진 것 같아요.

오매 쉽거나 내 성폭력 경험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오기도 했지만 나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처럼 살아보니까는 어떤 사람인 것 같거나 어떤 문제가 있는것 같더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자기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하는 공동체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열린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보니
아직 우리가 못다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다음회에
두 번째 열린터 이야기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다음회에 계속)



illustrated by 다미

여성의 폭력 피해 경험, 몸으로 다시 읽기

◎ 여성주의 상담팀 활동가 키라

여자로 태어났다는 것이
개인의 불평등한 삶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은
여성 운동의 중요한 주장입니다.

〈여자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여자니까 억울해도 참아야지, 어찌냐.〉

이런 '여자니까' 시리즈에 반대하기 위해 〈여자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통쾌한 일입니다. 여성의 부당한 지위는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 인식과 제도의 결과이기 때문에 인식 개선과 제도 변화를 통해 그런 통념이 사라지면 '여자니까' 라는 여성들에 대한 부당한 기대 역시 사라질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질문이 생깁니다.

모든 여자들이 '여자'로 길러진다면, 그 여성들이 모두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모두 다른 '여자'가 되어간다는 것은 '여자로서의 사회화'라는 설명과 배치되는 것은 아닐까? 여자로서 길러지고 구성된다는 설명은 여자로 길러지지만 모두 다른 여자가 되어가는 것을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여자로서' 차별받고 폭력을 당했지만, 그것을 극복할 '여자답지 않은 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여성을 설명하기도 어렵지요.

이 지점에서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몸은 개인의 변화를 설명할 때 중요한 키워드이지요. 누군가가 변화한다는 것은 변화한 생각이나 몸이 누군가의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많은 경우 개인의 변화는 개인 생각의 변화라고 이해되지만, 개인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몸의 변화에서 가능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지만, 내 몸은 여전히 그 말에 익숙하지 않을 때에,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은 쉽게 잊혀집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라는 말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지만 몸으로 오랫동안 '내 잘못'이라는 죄책감에 익숙한 사람은, 그 위로의 말 한마디를 통해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일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를 이야기해주시도 않지요.

우리가 성폭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성폭력의 사회문화적 발생 원인을 알아내어 근절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개인 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 여성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 여성들의 구체적인 경험 차원에서의 피해 관련 이야기들이 축적되고 그 차이들이 분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총 3회에 걸쳐서 연재될 내용은 ① 의사소통하는 몸 ② 주체적으로 증속되는 몸 ③ 세상이 체현된 몸입니다. 개인 주체라는 개념을 몸적인 차원에서 새롭게 할 때, 개인의 변화라는 것이 어떻게 새롭게 상상되고 여성 운동의 이름으로 기획될 수 있을지에 대해 탐색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몸이 의사소통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 라는 문장은 '언어로 하는 의사표현' 말고 몸으로 하는 의사소통이 있다는 말이겠지요.

누군가의 따뜻한 눈빛을 느끼면서 말하지 않아도 '음, 저 사람한테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느끼고 누군가의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몸 동작, 눈빛을 느끼며 자기 몸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피하고 있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의사소통은 상호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호 작용은 개인 사이의 권력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시키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몸으로 하는 의사소통은 즉각적으로,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종종 '성격' 이나 '원래 안 맞는 사람' '웬지 무섭다' 이런 말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에 대한 판단은 '원래' 그런 것이라기보다 몸으로 하는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진 판단입니다. 이것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입니다. 인간 관계를 규정짓는 것이 사회적 위계이고 권력 관계라고 하지만, 실제 그 권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개인의 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는 상하 수직 권력 관계로 인한 것이지만, 그 권력은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의 끊임없는 의사소통으로 유지됩니다. 상사가 엘리베이터에서 신입 사원을 만났을 때는 호의를 가지고 신입 사원의 어깨를 톡톡 치며 '요즘 잘 지내나' 라고 격려하는데, 이 때 신입 사원은 머리를 조아리며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죠. 상사의 '상사다운 몸의 의사표현' 에 신입 사원은 '신입사원다운 몸짓' 으로 응답합니다. 이 순간 상사와 신입 사원의 권력 관계는 확인되고 다시 재탄생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몸가짐' 으로 늘 지적받고 교육받습니다. 꾸중들을 때 어른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절 교육이라고 이야기되죠. 몸으로 하는,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인 것이지요. 꾸중하는 사람과 꾸중듣는 사람이 있어야 꾸중이라는 순간이 구성됩니다. 꾸중하는 사람은 한껏 열이 받아있는데, 꾸중 듣는 사람이 몸을 건들거리거나 멍하니 앉아있다면 꾸중이라는 상황 자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몸가짐에 대한 교육은 사실, 특정한 권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와 상대가 어떤 몸의 의사소통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여성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지하철에서 졸고 있다가 눈을 떴는데 옆에 앉아있던 아저씨의 손이 허벅지에 올라가있습니다. 아저씨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아저씨의 허벅지를 그렇게 주무르지 않고, 자기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여자라는 것을 파악하고 손을 올려놓습니다. 아저씨가 몸으로 말을 거는 것이죠. 아마 이런 말쯤이 될까요? '어린 여자니까 내가 함부로 해도 되지? 어른한테 함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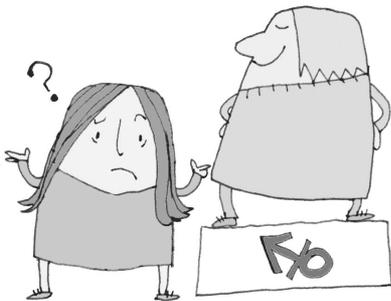
하면 착한 여자가 아니지? 뭐 이런 정도로요. 이 때 그 여성도 몸으로 응답합니다. 화가 나기도 하지만 무섭고 당황스러워서 몸이 굳어집니다. '이 손을 치워버리기가 왜 이렇게 어렵지?' 생각을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는 아저씨의 몸으로 거는 말에 대한 응답으로 읽히게 됩니다. '놀라고 무섭지만,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이겠지요? 함부로 대하겠다는 아저씨의 메시지와 그에 대해 나를 만지는 당신에게 저항하기를 포기하겠다는 여성의 메시지가 순간적으로 서로에게 전달됩니다.

위의 몸적 상호 작용은 아래와 같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여자들은 이 소통을 깨뜨리며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로 이렇게요.

내 허벅지를 만지는 아저씨의 손을 번쩍 들어 이빨로 짹! 깨무는거죠. 이 의사소통은 어떨까요? '어린 여자니까 내가 함부로 해도 되지?' 라고 아저씨는 메시지를 보내지만 '어린 여자라고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할 줄 알았나? 어린 여자가 할 수 있다고 당신이 상상하는 행동, 그것이 무엇이든 그 이상을 보여주며' 라는 메시지로 화답하는 거죠. 어른 남자와 어린 여자 사이에 기대되는 권력 관계는 이 의사소통의 실패로 순간 정지합니다. 그리고 소란이 시작됩니다.

이런 성별화된 의사소통의 실패를 의도하는 것은 우리 상담소의 자기 방어 훈련에서 활용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성에게 기대되는 몸이 아닌 '다른 몸' 이 된다는 것은, 여자로서 타인에게 보내야 하는 몸의 메시지를 다르게 해보는 연습입니다. 격투를 하고, 시선 싸움을 하는 연습을 하고, 소리치르는 연습을 하는 것은 내가 '여자' 로 요구되는 특정 상황, 특정 관계에서 상대가 나에게 '여자' 를 기대하며 몸으로 말을 걸어도 '여자' 로 화답하지 않기 위한 연습입니다.

성폭력 피해는 많은 경우 이러한 성별화된 몸의 의사소통이 성공적으로 일어난 경우에 발생합니다. 가해자는 여성적인 공포와 위축감, 무기력함을 기대하며 가해를 시도하고, 피해자 역시 그 순간에 자기에게 익숙한 공포와 위축감을 느끼며 무기력해집니다. 여성에게 갖는 특정한 기대와 그에 부응하는 반응, 이것이 성폭력 피해와 가해를 구성하는 순간이죠. 이런 차원으로 보면 성폭력 피해는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이라기보다는 몸 차원에서 일어나는 비언어적인 상호 작용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성폭력 피해는 '당한다기보다' 여성이 '경험하는 것' 이라고 이야기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그렇다면 성폭력 피해의 원인이 여성에게 있다는 것이냐?' 는 도전적 질문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몸의 상호 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의 목적은 몸적 의사소통의 주체인 여성이 그 의사소통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주체라는 것을 이야기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의사소통은 권력의 결과이지 원인으로 이야기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몸 차원에서의 의사소통은 종종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하는 본질주의적 담론으로 흐르곤 합니다. 예를 들어, '흑인들은 게으르다.', '돈 없는 사람은 독하다.' '여자들은 약삭빠르다.' 와 같은 말은 인종적, 계급적, 성 차별적 이데올로기입니다. 이 이데올로기는 부당한 사회적 편견이지만, 동시에 개인들의 몸 차원에서의 상호작용으로 지속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이데올로기에 반대하는 것과, 그 이데올로기를 실천하는 개인들의 몸 상호작용에 대한 각성은 동시에 이루어져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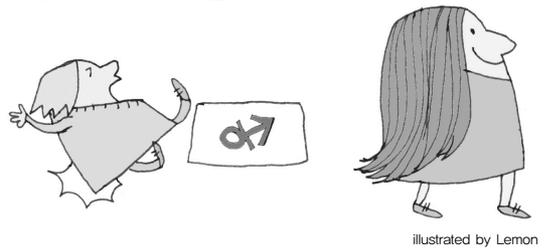
이미 몸 차원에서 특정한 상호작용에 익숙해있는 주체들은 긴박한 한 순간에 생각을 정지하고 자기 몸에 가장 익숙한 반응을 몸으로 보입니다. 그 반응은 굉장히 빠르고 습관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어렵죠. 사실 일방의 몸의 메시지가 달라진다면, 상대방의 메시지도 달라지게 마련인데 말이죠.

몸이 바뀌지 않으면 이러한 상호 작용의 관계는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 머리로는 '내 몸의 주인은 나' '싫다고 할 때는 확실히 no라고 할 것' 이런 주문을 외워도 그것이 몸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연습, 그리고 상호 의사소통의 반복되는 변화 과정을 통과해야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개인의 몸은 '가해에 응답하는 피해의 메시지' 혹은 '피해를 받을 준비가 된 몸의 언어'를 주변인들에게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을 바꾼다>는 말은 있지만, 몸을 바꾼다는 말은 없습니다.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내가 했던 말을 반복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내 몸의 반응을 바꾸는 것은 참 어렵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익숙한 몸의 메시지를 변화시키려면 기존의 몸 습관을 압도할만한 굉장한 연습과 반복의 시간이 필요하지요.

권력 관계가 개인의 몸적인 차원에서 재생산된다는 점, 많은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몸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점은 권력에 도전하기 위한 우리의 방법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세상을 바꾸는 것, 그리고 그 세상을 바꿀 주체들이 바로 몸의 변화를 통해 태어난다는 아이디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부를만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성폭력 상담 현장에서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이는 내담자에 대한 지지와 공감 그리고 도전해야할 것을 명확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 경험을 호소하는 내담자에게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무기력했던 당신은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정치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후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조언을 해주기 어렵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당신에게 익숙한 몸 습관이 가해자의 몸 행동과 상호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의식 차원에서 의도하지 않았었죠. 그것을 이해합니다. 지금 생각해볼만한 것은, 당신의 어떤 행동(몸 습관/분위기)이 '피해'라는 결과가 완성되도록 일조했는가, 에 대한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다시 피해와 관련된 상황에 노출된다면 자신은 어떻게 변화된 행동과 생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상해보고, 자신의 익숙한 몸 습관을 바꾸는 연습을 함께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개인 여성이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계기로 여성으로서 자신의 삶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그 통찰을 다른 여성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만나고 싶었습니다

- ⊙ interviewee_전 성과 인권팀 활동가 유석
- ⊙ interviewer_온라인사업팀 활동가 아름

미국에서 돌아온 활동가, 웃는돌을 만나다

웃는돌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그리고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지난 8년간 우리 상담소에서 일한 활동가입니다. 수많은 사업을 구상하고 기획했던 웃는돌에 대한 전설적 이야기(^_^;)는 아직도 상담소 안에서 회자되고 있지요.

그 웃는돌이 작년 8월부터 스탠포드, 포스코청암재단의 시민단체 활동가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 인디애나주 블루밍턴으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2007년 8월!!! 드디어 1년간의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웃는돌을 만나 그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웃는돌,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지난 1년 간 바다 건너 미국에서 연수를 하고 돌아오셨는데요, 연수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음. 우선 그곳에서 일년 가까이 지내면서 만나고, 부딪히고, 놀라기도 하고, 화도 나고, 감동도 받고 하면서 저한테 소중한 사람들 얘기를 하고 싶어요. 수업과 인터뷰, 혹은 오가다가 부딪혀 만난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전해준 이야기로 인해서 그곳에서의 시간이 마음 가득해질 수 있었거든요.

인종, 입양, 성정체성, 빈곤, 민주화, 여성폭력문제 등 다양한 이슈를 자신의 화두로 삼게 된 사람들, 소수자인 사람들, 혹은 그러면서도 주류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서로 만나고 부딪히면서 각자들이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도록 서로를 조명해주고 있었고, 또 어떤 곳에서 만날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관찰자이기도, 관찰되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같고 다른 경험들을 더하는 구성원이기도 했고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 시간들을 통해 그 사람들의 삶 역시 더욱 풍부해졌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소중한 경험을 가능하도록 도와준 분들, 모두에게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도 하고 싶고요.

다음은 웃는돌이 들려준, 블루밍턴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몇몇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이 & 로리

다이와 로리는 가끔 서로를 '어이, 불구자!', '어이, 하인!' 라고 부른다. 다이는 동양계 미국인, 그리고 레즈비언으로 자신을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고, 로리는 장애인이자 레즈비언인 요소가 자신의 삶에 가장 큰 부분이었다고 얘기한다. 둘은 아이를 낳고 키우며 동성부부의 공동양육권을 구하는 소송에서 처음 승소의 케이스를 만들어낸 숨어있는 활동가들이기도 하다.

다이는 편마비를 앓고 있는 로리를 도와줄 때 주변사람들이 자신을 동양인 하인쯤으로 생각한다는 점, 로리는 본인이 코카서스인종이지만 주변사람들이 장애를 가진 자신을 처량한 시선으로 본다는 점을 불편해 한다.

다이와 로리에게 서로를 불구자, 하인이라고 부르며 웃는 순간은, 둘을 소수자로 만드는 사회를 비틀고 초월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삶 자체가 운동이기도 한 다이는, 다른 이슈는 몰라도 코카콜라 불매운동에는 참여할 수 없는 것이 미안하다고 웃으며 얘기한다. 다이어트 코크의 위력. 그래도 다이의 책상에는 코카콜라회사의 계약을 철회할 것을 학교에 요구하는 분홍색 유인물이 붙여져 있다.

김 흠백 영어교사인 김은 911 사건으로 친한 친구를 잃은 후 자신의 삶이 달라졌다고 얘기한다. 911과 이라크 전쟁을 보면서 자신이 거대한 폭력에 동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더 이상 정부에 세금을 내고 싶어서 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LA에서 평화학을 공부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인디애나 대학에 와서도 영 어수업시간에도 인권과 평화를 주제로 토론을 유도하곤 한다. 가끔 911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여전히 그 당시처럼 눈물을 글썽인다. 911에 대한 어떤 정치, 경제적 역할에 근거한 설명보다 친구를 잃은 김의 911 이야기는 그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소와드 여자, 남자를 가리지 않고 화통하게 악수와 포옹으로 인사를 나누는 소와드는 인디애나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우디 여학생들 중에서 드물게 히잡을 쓰지 않는 친구다. 댄스음악을 좋아하고, 결혼이 정해져있는 약혼자가 있지만, 공부를 우선 마치고 싶다며 '사실은 집에서 정해진 약혼자를 잘 모르며, 보고 싶었던 적이 없다'며 웃으며 얘기한다. 그런 소와드가 여느날 처럼 인사를 건넸을 때, 한번은 누군지 몰라 한참을 들여다보아야 했는데, 어느날인가부터 히잡을 다시 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다른 동향 친구들이 계속 강권하기도 했고, 고국에 있는 부모들이 난처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무슨 말을 한다는 것이 히잡을 쓴 모습도 예쁘다고 얘기해버렸다. 그런 말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수 미안마 활동가로 정치적 망명을 한 수는 NGO학을 공부하고 있다. 수가 '망명을 했지만, 언젠가는 다시 미안마에서 활동하고 싶다'고 얘기할 때 눈이 반짝 빛난다고 느꼈다. 성폭력 이슈만을 독자적으로 다루는 한국의 성폭력상담소 활동 모습이 본인은 잘 상상이 되질 않는다고 말하며, 미안마 여성운동이 독자적인 여성이슈를 따로 다루기 보다는 민주화 운동, 새로운 정권창출 운동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얘기한다. 수는 방학이든 주말이든 늘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지금도 도서관에 가면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퀸 앙골라에서 온 퀸은 가난을 탈피하기 위해 미국유학을 10년 동안 준비했다고 한다. 퀸은 본인의 고향에서는 가난해도 퀸처럼 열심히 준비하면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일종의 역할모델이 되었다고 한다. 한번은 누군가가 정보와 지식에 대한 배고픔을 음식에 대한 배고픔보다 훨씬 큰 것으로 비유하여 얘기한 일이 있었는데, 그 말이 끝나자 한 구석에서 갑자기 큰 웃음소리가 들렸다. 퀸은 40여년을 하루 종일 빵 한조각으로만 지낸 자신의 삶을 얘기하면서 물리적 배고픔이 어떤 것인 줄을 아는 자신한테는 그런 비유가 무의미하다고 얘기한다. 여성이슈는 사소한 것이라고 치부하는 그를 평소에 경계하고 있었는데, 절대적 빈곤의 세세한 경험을 얘기한 그날 이후, 퀸은 내 마음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다.

캐롤 & 팻시 얼마전 중국학으로 석사과정을 마친 팻시와 하와이언 전통 춤을 가르치는 캐롤은 모두 예순이 넘었다. 예순이 넘은 나이에든 새로운 일자리와 남은 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탐색하고 있는 팻시와 하와이언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누구를 만나더라도 먼저 인사를 건네는 캐롤. 어떻게 그렇게 늘 밝아보이냐는 질문에 캐롤은 살짝 춤동작처럼 손끝을 올리며 "Live in the moment!!" 비슷한 나이에 자신을 '늙은이'라고 규정하는 우리 엄마에게 이 분들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 60? 60!

맷 진보적인 듯 보이는 미국 내 몇몇 주에서조차 커밍아웃하기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맷은 아시아계 혼혈인이자 게이인 자신이 겪는 이중차별에 대해 가끔 토로한다. 동양계의 모습이 있는 자신을 백인 게이커뮤니티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든 경험을 갖고 있는 그는 조만간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캐나다로 이주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는 내가 만난 그 누구보다도 성찰적인 페미니스트이다.

페핀스키 & 베스 페미니즘과 형사정의라는 수업정강을 할 때 베스는 늘 담당교수 근처에 앉아서 큰소리로 수업 중간 중간 소리를 치곤했다. 처음엔 화가 난 줄 알았고, 가까이 가서 인사를 나누고 나서야 그녀가 보청기를 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 자신이 가정폭력 피해자이면서 쉼터에서 생활해왔고 피해자 자원활동과 강의활동을 열심히 하는 활동가이기도 하다. 이 수업의 담당교수인 페핀스키는 베스와 또 다른 성폭력피해자분을 보조교수이자 토론리더로 수업을 함께 진행하는데, 벌써 몇 년째 이렇게 수업을 끌어오고 있다. 매 수업마다 아동 대상 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각 영역의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청하는데, 특히 피해생존자이자 활동가인 강사들을 위주로 수업을 구성한다. 이렇게 진행되는 수업에서는 학생들 역시 개인의 억압과 폭력피해 혹은 가해자로서의 경험들을 성찰적으로 쏟아 놓았다. 매 수업시간이 작은 말하기 대회인 셈이다.



와~~ 웃는돌이 경험한 만남과 감동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웃는돌이 머물렀던 블루밍턴이라는 도시는 어떤 곳이었나요?



블루밍턴은 인디애나주에 위치한 진보적인 대학도시예요. 인디애나주는 보수적인 주라고들 하는데요, 블루밍턴은 예술과 인문학을 주로 다루는 대학이 위치한 곳인데다 바로 옆 도시가 KKK(편집자 주- Ku Klux Klan의 줄임말. 미국 남북전쟁 시기에 흑인 인종해방에 반발한 남부 백인들이 결성, 백인의 인종지배를 목표로 협박·살인을 포함한 인종혐오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의 본거지일 만큼 역사적으로 보수적인 분위기의 주에 위치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진보적인 사람들, 소수자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 이곳으로 더 모이게 되었다고 해요. 블루밍턴은 동성애자 가구 비율이 미국 전역 내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도시이고, 인디애나 주에 있는 대부분의 도시 사람들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데 비해 블루밍턴은 민주당 지지율이 높아요. 그래서 인디애나 주의 블루닷(blue dot : 푸른색 점. 푸른색blue은 민주당의 상징색이다)이라고도 하지요.

블루밍턴의 시청에서는 2주에 한 번 공개회의가 열려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시민들이 자유로이 참가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공개적인 루트가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지요. 또 대학교 내에 공식적인 차별방지기가 있고, 그 아래에 인종차별, 성소수자차별, 성폭력, 기타 인권 침해 등에 대응하는 차별방지 파트들이 또 따로 있어요. 기구 내 적극적 조치 센터를 비롯한 위의 파트들이 함께 모여서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더라고요. 이슈가 다양한 만큼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게 참 좋았어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이벤트가 있나요?



미국에서 밤길되찾기 시위 Take Back The Night March에 참여했던 게 생각나네요. 밤길되찾기 시위는 대학 내 여성주의 동아리 등의 학생들과 지역 쉼터 두 곳이 주체가 되어서 진행했는데, 한국에서와 비슷한 구호들을 외치며 학교에서 시청까지 행진했어요.

시청광장에 모인 후에는 말하기대회가 열렸는데, 피해 경험 뿐 아니라 목격자로서의 경험도 이야기되었고 가해 경험에 대한 성찰적 말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가해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을 만큼 다양한 말하기가 오고 가는 것이 한국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지요. 말하기대회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조용하게 진행되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울고, 다독이고 하기도 했지만 너무 숨 막히지는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어요.

이후에 말하기대회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났는데, 실명 게재나 사진 없이도 적절하게 행사를 전하는 신문사의 보도 태도도 인상적이었지요.



그렇군요. 앞으로의 계획은?



상담소 활동을 정리하고 나서는, 태어나서 '나는 누구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를 이제 처음 고민하게 된 것처럼 나의 지난 삶은 어땠는지, 이후에는 무엇을, 어떤 속도로,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인지... 질문하는 시간들이 계속 되었어요. 아직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우선은 영국 예섹스대학에서 인권학을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전 세계의 다양한 활동가들이 모이게 돼요. 다양한 문화에서부터 각자의 이슈를 갖고 모인 사람들을 만나 여러 경험을 배우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싶어요.

생각해 보면 '인권'이라는 키워드는 상담소에서 활동할 때 언제나 가까운 것이었잖아요. 피해자에게 어떤 부분이 확보되어야 한다거나 무엇이 침해되었다거나 하는 것을 말할 때, 부분적으로 인권개념을 이용하거나 인권개념 자체가 누구를 배제해왔는지를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식으로요. "모든 제도는 명백히 그렇다고 입증되지 않는 한 당연히 차별적일 것이라고 간주해야 한다.(조서너 만)"는 말처럼, 인권개념 역시 비판되고 변화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 다양한 배경과 이슈를 가진 활동가들과 함께 상상하고 배우면서 고민해볼 수 있었으면 해요.



그렇다면, 앞으로 상담소에서는 웃는돌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



하하하. 상담소에서 활동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많은 정체성들 중 여성과 성폭력피해자로서의 정체성에 집중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내 속의 많은 정체성들이 무엇 하나 특별히 큰 비중 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될지 아직은 잘은 모르지만, 좌충우돌 지금까지 살면서, 활동하면서의 경험이 이후 삶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해요. 분명한 것은 상담소 활동하면서 잘못했던 일, 실패했던 경험, 또 너무 근사하고 신났던 경험들이 아프게, 기쁘게 삶의 든든한 바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보다 일에도 사람에게도 덜 잘못하고 더 기여할 수 있을 때 상담소와도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언제, 어떻게 가능할까요? 히이...

와우! 웃는돌의 새로운 여행에 저희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영국에서, 그리고 다시 한국에서. 멋진 활동 기대할게요! 



몸을 통해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 떠나는 여행

◎ 활동가 _ 모모



“도대체 춤테라피가 뭐죠?”

나를 처음 만나자마자 사람들이 물어오는 질문이다. 몇 년 동안 이 질문에 나는 많은 대답을 해보았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편안하게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없었다. 그렇기에 여기서 이론적인 긴 설명을 늘어놓기보다, 내면에 춤이 잠재된 이들에게 가장 편안하게 다가설 수 있는 간단한 사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몇 년 전 가평으로 춤테라피 강습을 다녀온 적이 있다. 오랜만에 도심을 벗어나 가평의 맛깔스러운 공기를 아낌없이 마셨다. 내가 찾아간 곳은 졸업을 앞둔 여대생을 대상으로 리더쉽 훈련을 하는 캠프였다. 리더를 꿈꾸는 20명의 여학생들이 꽃 분홍 단체티를 맞춰 입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교육장으로 학생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한창 에너지가 활발하게 움직일 시기일거라는 나의 기대와 다르게, 그녀들의 눈에는 생기가 없고 몸에는 피곤함이 가득했다. ‘오늘도 쉽지 않겠군. 어디 한번 시작해볼까.’

간단하게 춤테라피에 대해서 설명을 한 후 가볍게 몸을 풀기 시작했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어색함에 여기저기 코웃음이 터져 나왔다. 마음껏 크게 웃으라고 하였지만 그녀들은 웃는 것조차도 자유롭게 하지 못했다. 이어서 리듬에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앞으로, 옆으로, 그리고 뒤로, 곡선을 그리며, 직선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만히 서 있었다. 아니면 한 가지 패턴이나 속도로 앞을 향해 걸어 나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가슴이 아팠다. 이 친구들이 스스로 방향을 설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움직임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이다. 이대로는 수업이 어려울 것 같았다.

그녀들을 멈추게 한 후, 동그랗게 둘러앉았다. 많이 어색하냐고 묻자 모두들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보니 질문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여러분 요즘 고민이 뭐예요? 뭐가 제일 힘든가요?”

한 여학생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솔직히 좀 숨 막혀요. 여기에 와서 계속해서 내 목표가 뭔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거든요. 안 그래도 요즘 취업이 안 되서 머리가 아픈데 막상 이런데 까지 와서 또 생각하러니 답답해요.” 모두들 고개를 끄덕임과 동시에 손뼉까지 쳐댔다.

“그러면 우리 그 답답함을 한 번 표현해 봐요.”

이제야 무엇을 할지 감을 잡은 듯 했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동그랗게 둘러섰다. 한명씩 돌아가면서 자신의 답답함을 표현해 보았다. 심하게 욕을 하는 그녀, 발악하며 온몸을 흔드는 그녀, 웅크리고 앉아 침묵하는 그녀, 팔짱 끼고 껴려보는 그녀 등, 20가지의 다양한 화가 공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새 어색하고 경계로 가득 찼던 에너지가 부드럽고 느슨하게 변화해 갔다. 자신의 동작을 확장해서 그리고 반복적으로 음악에 맞추어 표현해 보자고 했다. ‘자우림’의 ‘하하하송’에 맞추어 답답함이 몸에서 모두 떨어져 나갈 때까지 신나게 흔들여 댔다.

“stop!!”

나의 목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정지했다. 거친 호흡만큼 그녀들의 몸이 격렬하게 확장되었다 축소되어지고 있었다. 우리의 몸이 본래의 호흡으로 돌아오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다시 음악을 틀고 걷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녀들 속에서 뭔가 잃어버렸던 방향감각이 되살아났다. 처음에는 나의 신호에 따라 그녀들은 움직였지만 어느새 그녀들은 앞으로 움직일지, 뒤로 갈지, 옆으로 움직일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돌지를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음악에 따라 속도를 내기도 하고 느리게도 움직임을 표현하며 빈 공간을 찾아 움직였다. 비어 있음이 그녀들의 움직임을 이끌고 있었다. 힘없이 늘어져 있던 두 팔이, 경직되어져 있던 두 팔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몸과 하나가 되어 움직여 가고 있었다. 한명 한명의 몸의 문이 열리고 리듬으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너무 행복해서 새신을 신은 어린아이처럼 폴짝 폴짝 뛰고 싶었다.

사람들은 대부분 춤테라피를 처음 접할 때 음악에 맞춰 춤을 해치워 버리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한다. 그 생각이 몸을 붙잡고 있어 우리의 방향감각을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 자신의 본능과 내면의 소리에 따르는 움직임을 잃어버리게 한다. 어릴 적 생각이 나는가? “너는 커서 뭐가 될지니? 목표가 뭐니? 그래서 성공하겠니?”라고 물으며 나의 상상의 세계를 맴돌던 어른들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너무 목표 지향적인 학습을 받아왔다. 그 결과 우리는 지나치게 목적을 지향하는 감각만 발달하여 원래의 방향감각, 즉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 내면의 충동과 욕구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렸다. 뿐만 아니라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의 현재를 돌아보기 보다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

흔히 춤테라피에서 걷기 명상은 삶에 비유된다. 우리는 삶에서 늘 똑바로 걸어 나아가 벽을 만나면 그 한계를 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길이 막막할 때에는 빈 공간을 찾아 뒤로 또는 옆으로 한 발 짝 물러서거나, 아니면 원을 돌듯이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 때를 알아차리는 것, 그 빈 공간을 향해 움직일 수 있는 유연함을 나는 그녀들에게 선물하고 싶었다.

그녀들은 마지막 포옹과 양 볼의 키스로 서로의 가벼워진 몸과 마음을 열싸 안았다. 한명의 친구가 다가와 두 팔로 꼭 껴안으며 나에게 속삭였다. “선생님, 심장으로 부터 퍼져 나간 나의 피가 온 몸을 돌며 환호성을 치고 있어요. 나에게도 심장이 있었어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너무 기뻐 서로 열싸 안고 환호성을 질러댔다. 몸을 통해 만난 그녀들. 2시간의 만남이 몇 개월의 만남보다 진하고 솔직한 시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알아차리는 것. 오늘이 바로 남성스런 여성스런 몸도 아닌, 오롯이 나의 몸을 만난 날이라고 자축하며 포옹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

이 글을 읽고, “도대체 춤테라피가 뭐죠?”라고 또 다시 묻는다면,

나의 대답은 오로지 한가지 이다.

“일단 한번!! 춤춰 보자구요~~”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을 이야기 하다

◎ 우리 상담소 회원 _ 토리



『돈 잘 버는 여자 밥 잘 하는 남자』
알리 러셀 흑실드 저_백영미 역_아침이슬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뛰기 시작한다. 늦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하다. 습하고 후덥지근한 8월의 날씨가 '지치지 않니~' 하며 다리를 부여잡는다. 스티디 준비를 할 때만 해도 느끼지 못했던 토닥 모임에 대한 열정이 깨달아진다. '달려가야 해~'

주말에 상담소 문이 활짝 열려 있으면 상황은 딱 두 가지이다. 초췌한 얼굴로 일거리를 찾아 온 상근자가 있거나, 토닥 스티디가 있는 날이라는 것.(전적으로 토닥이 생각)

문을 열자 시원한 공기와 깨끗하게 정돈 된 탁자가 눈에 들어온다. 부지런한 토닥이들이 먼저 도착해서 스티디 준비를 해 놓은 모양이다. 오늘도 늦었음에 한껏 반성하며, 스티디에서 풀어놓을 커리들을 떠올려본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번 [보이지 않는 가슴]에서 논의했던 '돌봄 경제학'에서 이어진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분담'이다. 오늘 자리가 토닥모임의 새로운 주제를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스티디를 잠깐 쉬어가자며, 가벼운 읽을거리로 결정한 책이었다. 하지만 막상 읽고 보니 그리 간단하게 넘어 갈 이야기가 아닌 듯싶었다. 20여 년 전 미국에서 연구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나와 내 이웃의 이야기와 이리도 간단 말인가. (역시 여성과 가족을 이야기 하는 책들은 10년, 2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공감지수 100% 달성이 가능하다.)

시원한 차 한 잔을 준비해 앉아, 그동안의 일상과 오지 못하는 토닥이들의 소식을 두런두런 나누고 나면 토닥 스티디가 시작된다.

알리 러셀 흑실드는 1976년부터 1988년까지 미국 맞벌이 가정 50가구의 부부간 가사/양육분담을 심층 인터뷰 하였다. 그 중 열두 쌍 부부의 실제 사례와 연구결과 및 여성 가사노동의 현실과 저자의 제언을 담은 책이 바로 [돈 잘 버는 여자 밥 잘 하는 남자]이다.

산업과 경제의 발전은 결혼과 가족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여성이 (가정 외)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노동하는 여성을 둘러싼 가족, 사회, 기업도 함께 변화가 필요해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혁명'은 오지 않고 있다. 저자는 이것을 '지연된 혁명'이라 명하고, 이처럼 변화한 여성과 변화하지 않은 가족(남편) 간에 발생하는 갈등들을 이야기 한다.

사레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사노동을 둘러싼 갈등이 존재했다. 설령 그러한 갈등이 비가시적이라고 해도, 부부 둘 중 한명은 그것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 채 침묵하거나 외면하고 있었다. 열두 가정의 가장 보편적인 '가족신화'는 가사노동과 양육의 일차적 책임이 아내에게 있으며, 남편들은 (가사노동 분담 여부를 떠나서) 자신에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가족신화가 가사노동 문제의 시작이자, 그 문제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사노동은 집 안에서 하는 노동일뿐만 아니라, 사회를 사는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노동이다. 집 안에서 취하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의 힘든 노동의 결과물이다. 집안을 편안한 컴퓨터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할 몫을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떠맡긴 채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이 발생할 때 아내들이 취하는 전략은 슈퍼우먼이 되거나, 직장 일을 줄이거나, 돈으로 서비스를 사거나, 집안일과 가족들에게 쓰는 시간(애정)을 줄이는 것이었다(남편들의 경우 취하는 전략이 매우 소극적이었고, 자신이 아닌 아내의 변화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게 아내들의 전략을 통해서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 갈등들은, 여전히 아내들에겐 책임져야 할 문제로 남아있었다. 한 분유광고에서 아기를 안은 안경을 낀 정장차림의 여성이 도도하게 카메라를 응시하며 서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저자도 이와 비슷한 광고사진에서 가사와 육아와 직장일을 병행하는 여성들의 안쓰러운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했다. 우리가 소비하는 이러한 이미지 한 컷 역시 여성의 고민들을 간단히 덮어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가사분담을 하려고 한건 아니지만 서로 좋아하는 영역을 맡다보니 자연스럽게 가사분담이 되었어'

'이런저런 일을 서로 번갈아 해 보다 보니, 특정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 일을 맡게 되더라고. 어떤 일은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잘 하니까'

' 지금은 분담해야 할 가사노동도 그렇게 많이 있다고 보진 않는데... 새 식구가 생긴다면 어떻게 나눠야 할지 걱정이야. 그 사람은 자신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 주말에 혼자 나와서 이웃들과 어울리는 선배 남편을 보고 화가 난적이 있어. 그 사람은 휴일이니까 그러겠지만, 밤낮이건 주말이건 항상 아기 보느라 고생할 선배가 생각나더라고'

책 이야기는 다시 자신의 이야기, 혹은 주변의 이성 커플들 이야기로 이어졌다. 아내와 남편이 가사노동의 평등한 분담을 이루어내는 것도 힘들겠지만, 이것이 평등한 노동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자가 말했던 것처럼, 여성을 둘러싼 모두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혁명을 지연시키는 범인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앞으로 토닥모임의 주제는 여성노동, 성매매와 성노동이다. '사회주의'를 시작으로 '사회주의 페미니즘'과 '가부장제의 역사'를 거쳐 '가족'을 만나고 '탈식민주의'를 읽어왔다. 새롭게 시작되는 여성노동연구가 노동하는 나와 노동하는 여성들의 삶을 더욱 세심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주길 기대해본다. 토닥 화이팅! ☀

집안을 편안한 컴퓨터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할 몫을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떠맡긴 채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이 발생할 때 아내들이 취하는 전략은 슈퍼우먼이 되거나, 직장 일을 줄이거나, 돈으로 서비스를 사거나, 집안일과 가족들에게 쓰는 시간(애정)을 줄이는 것이었다... ..
그렇게 아내들의 전략을 통해서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 갈등들은, 여전히 아내들에겐 책임져야 할 문제로 남아있었다.



6.18 6.18 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 항소심 판결과 솔따르기 상고심 판결에 대한 여성단체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6월 14일에 있었던 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유예 판결과 솔따르기 강요가 성희롱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반역성적인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거리집회가 서울 고등법원 근처에서 있었습니다. 이 날, 멋진 퍼포먼스와 통쾌한 구호로 서울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성찰과 변화를 촉구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6.19/6.26 상반기 평가회의 / 하반기 계획회의

상반기를 정리하고 하반기를 계획하는 평가회의/계획회의가 6월 19일과 26일에 열렸습니다. 우리 상담소 활동가들이 모두 모여 둘러앉아 그간의 활동에 대해 성찰하고, 하반기의 활동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21 사례연구

이 날은 직접대면이 아닌 온라인 공간에서의 만남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는 이메일상담에 대한 사례연구가 있었습니다. 슈퍼바이저 김미량 선생님을 모시고 20여분의 상담팀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메일상담의 특징과 보다 유능해야 할 지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상담 사례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6.27/7.25 작은말하기

6월 27과 7월 25일 저녁 7시, 세 번째와 네 번째 '작은말하기'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지난 4월 25일에 시작해서 매월 마지막 수요일마다 열리고 있는데요, 15~20명의 여성들이 둘러 앉아 서로의 경험을 주고받으며 공감과 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6월과 7월에도 작은말하기 장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고요, 떠들썩한 뒤편이 자리에서는 한층 가까워진 마음으로 뜻대한 이야기나 소소한 일상 이야기도 나누었다고 합니다.

6.28 신규후원회원 오리엔테이션

6월 마지막 목요일, 신규후원회원 오리엔테이션이 열렸습니다. 새로 상담소의 식구가 되어주시는 신규 회원님들과 함께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상담소가 해온 활동과 지금 하고 있는 사업내용들을 회원님들과 공유하고 회원님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7.2~13 사법연수생 연수

7월 2일부터 13일까지 사법연수생 세 분이 오셔서 우리 상담소에서 연수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상담소에서는 90년대 후반부터 사법연수생 연수를 매년 받아왔는데요, 이번 연수도 성폭력에 대한 여성주의적 이해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 분 모두 성폭력 사건 공판 참관, 판례 평석, 스터디 등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뜻깊은 만남이 되었습니다.

7.4 제12회 여성주간 기념 유공자 포상 대통령 표창 수상

7월 4일, 제12회 여성주간 기념 유공자 포상에서 우리 상담소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우리 상담소가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 후원회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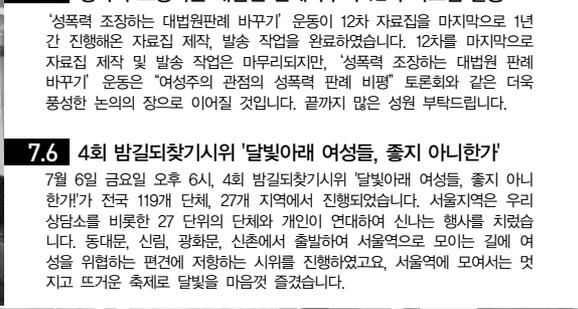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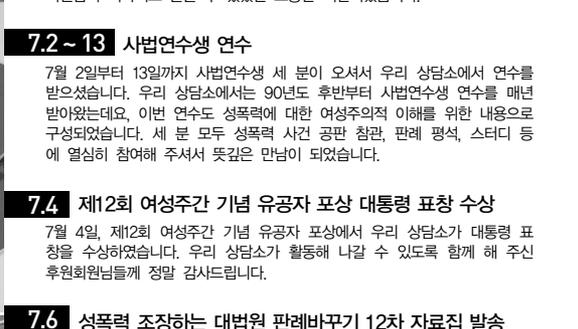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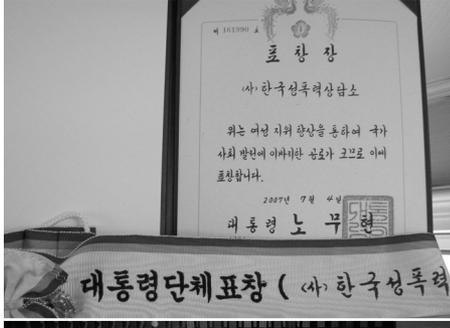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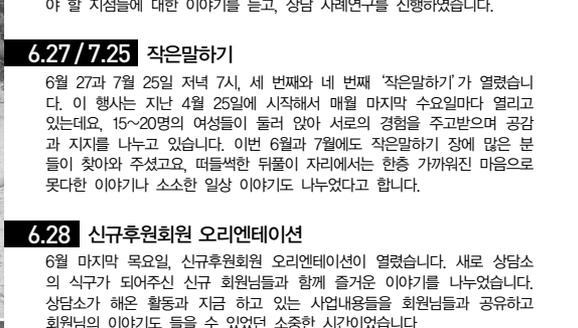
7.6 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바꾸기 12차 자료집 발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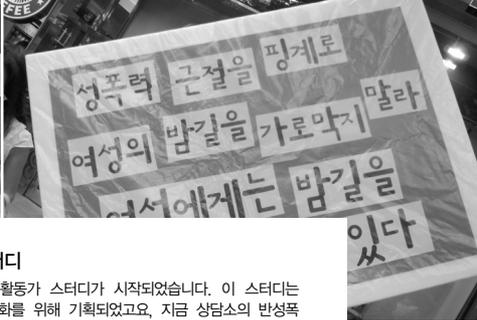
'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판례 바꾸기' 운동이 12차 자료집을 마지막으로 1년간 진행해온 자료집 제작, 발송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2차를 마지막으로 자료집 제작 및 발송 작업은 마무리되지만, '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은 "여성주의 관점의 성폭력 판례 비평" 토론회와 같은 더욱 풍성한 논의의 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끝까지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7.6 4회 밤길돌찾기시위 '달빛아래 여성들, 좋지 아니한가'

7월 6일 금요일 오후 6시, 4회 밤길돌찾기시위 '달빛아래 여성들, 좋지 아니한가'가 전국 119개 단체, 27개 지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지역은 우리 상담소를 비롯한 27 단위의 단체와 개인이 연대하여 신나는 행사를 치렀습니다. 동대문, 신림, 광화문, 신촌에서 출발하여 서울역으로 모이는 길에 여성을 위협하는 편견에 저항하는 시위를 진행하였고요, 서울역에 모여서는 멋지고 뜨거운 축제로 달빛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뭔대! 상담소





7.10 ~ 9.4 활동가 스티디

7월 10일 화요일 약 6회의 활동가 스티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스티디는 활동가들의 여성주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되었고, 지금 상담소의 성폭력 운동과 관련하여 좀 더 논쟁되어야 할 것들, 논쟁되고 있는 지점들에 대하여 밀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9월 4일까지 활동가들 모두 권김현 영님의 리딩을 따라 열심히 글을 읽고, 토론하고, 공부하였습니다.

7.12 월레포럼 '한국 반(反)성폭력운동의 제도화와 자율성

이번 월레포럼에서는 한국 반(反)성폭력운동의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형성된 운동의 특성과 역량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제도화와 자율성에 관한 이항대립적 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신상숙님께서 '한국 반성폭력 운동의 제도화와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발제를 주셨고요, 현재 우리 상담소의 고민과 연결되는 내용이어서 치열한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7.25 욕망찾기초급과정 1기 마무리

참가자 6명 전원이 10회동안의 긴 여정을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음악을 듣고, 그림을 그리고, 표현하면서 나의 몸과 욕망에 집중했던 10주간, 그 무엇보다 특별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나를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소감이 마음에 남습니다.

7.28 춤세라피 워크샵 '꿈꾸는 몸, 춤추는 마음' 시작

몸의 느낌을 찾아가는 8주간의 여행길이 지난 7월 28일에 시작되어 벌써 여러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러웠던 몸짓들이 어느덧 리듬에 맞추어 자유롭게 움직이는 춤으로 변해갔습니다. 섬세하고 자유로운 움직임들을 통해 몸과 마음의 유연성과 힘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7.28 ~ 8.3 여성주의 자기방어 '다른몸되기' 지리산 중주

다른몸되기 프로젝트 팀은 지난 7월 28일부터 지리산 중주-홍성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열여섯 여자들의 지리산 중주 성심재에 새벽 4시 40분에 도착하여 새벽 어스름과 함께 시작한 중주산행은 체력과 마음에 '무한도전'을 선사해 준 12시간 걷기, 장엄하고 아름답게 펼쳐진 기화오초와의 만남, 안개에 휩싸인 정덕목산정에서의 느그느그하기, 그리고 마지막 날 새벽 천왕봉에서의 일출 관람까지 우리를 다른 몸의 세계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8.23 성폭력 상담 활동가를 위한 심화교육 '여성주의 상담, 나침반을 찾아라' 시작

성폭력 상담 활동가를 위한 심화교육 '여성주의 상담, 나침반을 찾아라'가 8월 23일 시작되었습니다. 이 교육은 여성주의 상담 활동가들이 자신의 상담을 재점검하고 이후 활동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약 4주 간 활동가들이 상담·지원 경험을 함께 나누며, 여성주의 상담의 열린 가능성을 탐색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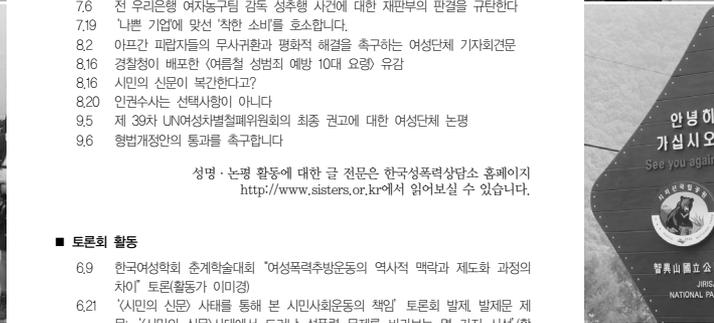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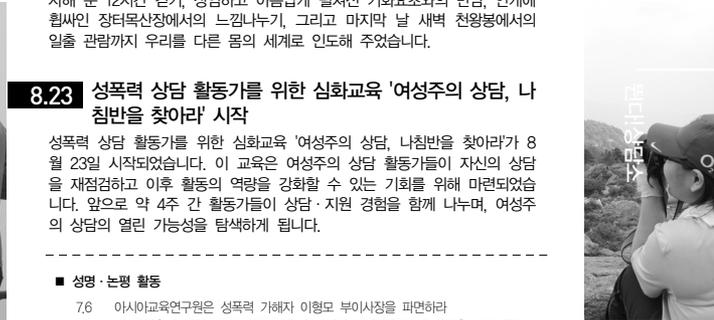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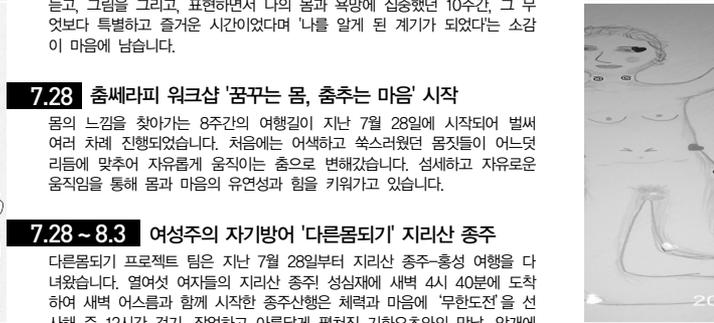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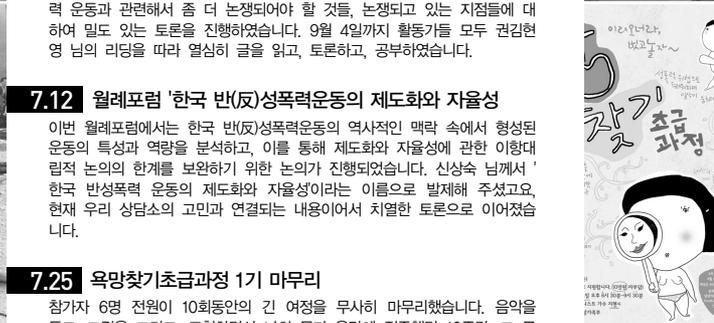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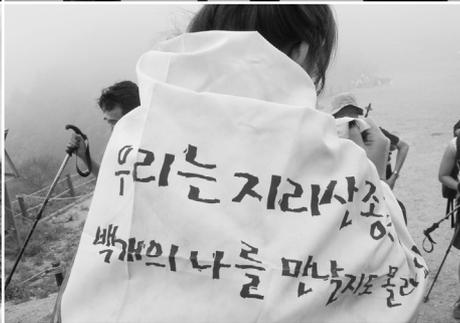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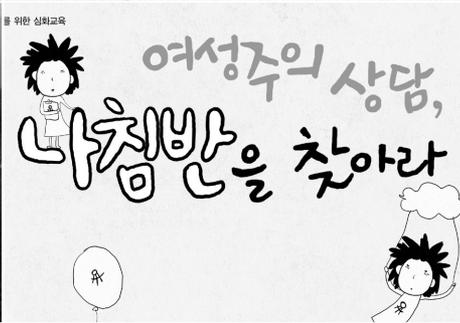
■ 성명·논평 활동

- 7.6 아시아교육연구원은 성폭력 가해자 이형모 부이사장을 파면하라
- 7.6 전 우리은행 여직원구덩이 감독 성추행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규탄한다
- 7.19 '니쁜 기업에 맞선 착한 소비'를 호소합니다.
- 8.2 아프리카 피랍자들의 무사귀환과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여성단체 기자회견문
- 8.16 경찰청이 배포한 (여름철 성범죄 예방 10대 요령) 유감
- 8.16 시민의 신문이 복간한다고?
- 8.20 인권수사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 9.5 제 39차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권고에 대한 여성단체 논평
- 9.6 형법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합니다

성명·논평 활동에 대한 글 전문은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 <http://www.sisters.or.kr>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 토론회 활동

- 6.9 한국여성학회 춘계학술대회 "여성폭력추방운동의 역사적 맥락과 제도화 과정의 차이" 토론회(활동가 이미경)
- 6.21 '시민의 신문' 사태를 통해 본 시민사회운동의 책임 토론회 발제, 발제는 제목: '시민의 신문'사태에서 드러난 성폭력 문제를 바라보는 몇 가지 시선(활동가 오매)
- 7.6 한국사회포럼 '솔직하고 발칙하게 물어봐서 여성운동, 함께 고민해 볼까?' 토론회 발제, 발제문 제목: '여성운동, 새롭게 도약하기' (활동가 지선)



달빛아래 여성들, 좋지 아니한가!

◎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원사

119개 단체와 27개 지역! 제4회 밤길되찾기시위가 지난 7월6일 금요일 전국적으로 진행되었다. 서울은 여느 때와 조금 다르게 여러 곳에서 흩어져 행진하여 한곳으로 모이는 방식이었다. 신촌, 신림, 광화문, 동대문으로 나뉘어 각 단위별로 가까운 곳에서 몇 개 단체들이 함께 모여 출발하여 서울역에 집결했다. 이동 수단은 도보와 자전거, 대중교통 등이었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홍보전을 택하여 각 단체들의 특성을 잘 살리는 등 행사가 다채로운 느낌이었다.

우리 상담소는 신촌에서 출발하였다. 대부분 도보와 지하철을 이용했고 몇 명은 '밤길되찾기' 깃발을 꽂고, 구호를 새긴 노란망토를 쓰고 자전거로 서울역까지 달려왔다. 노란망토를 휘날리고 얼굴이 붉어져 달려왔던 그들의 모습은, 겨우 10여대가 채 안 되는 수였지만 정말 멋지고 감동적이었다. 와~ ^^*

매년 달빛시위는 조금 더 도전적이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우리 사회에 말 걸기를 시도했다. 그래서 달빛시위에 대한 평가는 “배타적 메시지가 대중들에게 설득력이 없다”는 부정적인 비판도 항상 따랐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 술 더 떠, 행사를 하기도 전에 내부적으로 문제제기를 받게 되었다. 포스터가 그 주역이었다. 처음 포스터 시안을 전국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협의회 카페에 올렸을 때, 몇몇 상담소에서 강한 거부감을 표현했던 것이다. 전체 참여단체들을 대표해서 고생하는 기획단에 대한 예의, 혹은 예의상이라도 보일 수 있는 고마움의 표시는 전혀 없는 반감의 여운만이 남는 코멘트라. 헉! 하지만 그러한 반감의 표현은 고마웠다. 어떤 지점에서 달빛시위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말 걸기를 해야 하는 지 좀 더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것은 우리가 편하고 쉽게 받아들이는 문화, 자연스럽게 여성들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는 이상하게 일상적인 그 문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할 때 대중의 감정을 상당히 건드리게 되는 너무나 당연하게 반복되는 일방의 문화였다.

포스터는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 아이가 '씩은 미소'를 지으며 정면을 주시하고 있다. 그것도 인생 다 산 것 같은



report & membership



표정과 건들거림이다. 그런데 옷차림을 가만히 보면 표정과와는 완전 부조화다! 사회가 원하는 예쁜 원피스를 입고 하이힐을 신은 그녀, 밤이 되자 그녀는 발에 불편하기만 할 것 같은 하이힐을 벗어 던지며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난 그저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연기를 할 뿐이야. 내가 이 따위 것들을 즐거워 입고 신는 줄 알아? 웃기고 있네. 왜, 기분 나쁘냐?” 이 사회를 역으로 비웃는 이 소녀의 씩소는 그야말로 우리의 기분을 한껏 즐겁게 했다. “저러니 성폭력을 당해도 싸”라고 말하는 ‘저러니’에 해당하는 저 태도와 표정을 간판에 걸고 우리는 사회가 말하는 “당해도 싸 성폭력”이란 없다고 “그건 가해자들의 정당화일 뿐이며, 성폭력을 조장하는 사회가 말하는 목소리다”라고 당차게 비웃었던 것이다.

이번 달빛시위는 그 전 3회까지의 달빛시위 분위기를 이어 받아 조금 더 여성의 문화행사로서의 의미를 부각했다. 누군가는 공연하고 누군가는 관람하는 형태를 조금 벗자라는 한 기획단 멤버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참여자 모두가 다 같이 즐기는 방식으로 행사 컨셉을 잡았다. 특히 ‘달빛체조’는 그런 의미에서 더욱 두드러진 퍼포먼스였다. 본 상담소 ‘다른 몸 되기’ 프로젝트 팀이 제작한 “나의 일상을 통제하겠다고? 워워~”라는 재미있는 체조 영상을 우리는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전국적으로 배포했다. 사람들은 각 단위별로 이 체조를 배워 와서 현장에서 함께 했다. 서울역광장을 장악하고 선 그 많은 여성들이 함께 ‘워워~’ 춤을 추는 기분이란~

서울역광장이 장소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다. 기존에 “시위를 할 때마다 술취한 노숙자 한 두명이 꼭 행사를 방해했다”며 어지간하면 경찰에 미리 도움을 구하거나 장소를 옮기라고 했다. 여성들끼리 있으면 더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당일 상황은 그러한 우려를 넘어섰다. 달빛체조가 끝난 뒤 당일 각 단위별로 행진했던 모습을 노트북에 연결해서 보는 와중에, 한 술 취한 아저씨가 욕을 하며 우리에게 다가왔다. 하지만 그는 바로 돌아서서 사라져버렸다. 왜? ^^ 우리 모두가 기죽지 않고 ‘지랄’ 했기 때문이다. 이후로 몇 명의 할아버지와 아저씨들이 유사한 형태로 왔다가 역시 유유히 사라졌다. 함께 하는 여성들의 연대는 우리의 힘을 몇 배로 만들고 비겁한 자들의 편견과 해코지를 가볍게 만들었다.

일부 사람들은 밤새 서울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겠다고 남고, 다른 그룹은 마저 서울 시내를 돌며 시위를 연장했고, 몇몇은 흐뭇한 마음을 안고 뒷풀이를 했다. 역시 달밤에 즐겁게, 여유있게, 운치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일상적이고도 아름다운 일인가!! 🍷



우리는 지리산 종주 중 !

백개의 나를 만날지도 몰라요!

◎ 다른몸되기 팀 생초

1 출발 전

2007년 5월 19일 '10대 여성 다른몸되기 훈련 - 당신의 시선을 넘어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각자 지속하는 무예 훈련과, 매 주 토요일마다 모여 함께 하는 춤췌리피, 자전거 한강탐사, 3m 물속도전, 다른 몸 여성만나기 등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 중 고대하고 고대하던 프로젝트의 정수, 지리산종주산행이 다가왔다.

솔직히 이번 프로젝트하면서 제일 기다렸던 프로그램이다. 어쩔 지리산을 위해 이제까지 프로그램을 열심히 참여했는지 모른다. 점점 출발의 시간이 다가오자 갑자기 즐거운 마음이 무거워진다. 방안에서 짐을 꾸리는데 이 방에 다시는 못 돌아올 것 같은 기분, 다시 웅이(강아지)를 못 볼 것 같은 생각이 문득 들고 마음이 불안해졌다. 왜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의문이지만, 하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7월 28일 상담소로 향했다.

2 발대식

간단한 인사와 식순, 우리를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용산역으로 출발한다. 용산역으로 가는 동안 이제서야 슬슬 실감이 난다. 내일 새벽이면 지리산에 있을 나를 생각하며 가벼운 마음, 즐거운 마음, 무사고를 기원한다. 구례까지 가는 밤기차에서 계속되는 불안한 마음을 털고자 나는 어느새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었다.

#.3 지리산의 추억

새벽 4시 버스로 어스름한 성삼재에 도착했다. 스트레칭과 구호로 다시 한 번 단결을 확인하고 드디어 서서히 동이 터오는 시각, 우리는 키 만한 짐들을 등에 지고 무거운 걸음을 시작했다.



report & membership

비록 세 조로 나뉘었지만, 다른 몸 팀의 열여섯 여자들을 마음에 담고 모두의 무사고를 기원한다. 노고단 정상에서 길 잃은 줄 알고 잠시 방향했던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준 노고단 하늘, 불사조 같은 구름 또한 우리를 바라봐준다. 정말 자연이 만든 풍경인지 의심될 정도로 영화에서나 보았던 것 같은 풍경들을 보면서 같이 못 와 아쉬운 사람들이 마구 떠오른다. 자, 이제부터 지리산과 우리의 2박 3일이 시작되었다.



천재는 까마귀와 대화하기 시작했다. 꿈이 나타나면? 이라는 팸플릿이 우리 앞에 나타나 이곳이 지리산임을 실감케 한다. 보리의 모든 감탄사 “대애박!!” “시리즈가 유행할 조짐이다. 간식 앞에서는 천사가 되고 밥 앞에서는 식신이 되는 보리. 사방에 돌뿐인 길을 지나며 과연 사람이 다니는 길이야? 의심할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던 천재가 뺄어놓은 침, 약수터를 발견해서 환호치르던 순간, 종주 도중의 그 시원하고 아름다운 노상방노들, 속세에서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보리빵과 볶은 김치의 환상 궁합, 연하천으로 가는 수많은 계단을 보며 이걸 다 어떻게 지었나 감탄하던 순간, 감탄은 감탄이고 보이지 않는 계단 끝은 도대체 어디야 투덜대던 우리팀 사람들. 힘든 종주 도중 조용히 나타났던 다람쥐와 그리고 노루! 만자는 예의 그 입담으로 종주객과 외삼촌 조카 놀이를 하면서 첫날 오후 산을 걸었다.



벽소령 산장이 나타났다! 오늘 몇 시간 몇 킬로를 걸었는지 다 잊고 다시 얼굴이 밝아진다. 그리고 곧이어 말이 없어졌다. 왜냐하면 감동의 코펠 부대찌개와 밥과 누룽지와 라면속으로 들어갔으므로, 백린은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했다. “이렇게 밥이 맛있는 건 처음이야”

둘째날에는 제석봉과 천왕봉에 올랐다. 제석봉에서는 구름을 먹는다고 다들 입을 벌리며 걸었다. 천왕봉 비석을 직전에 앞두고 정상에서 몰려오는 안개로 뒤에 오던 사람들이 포기해야 했던 사건도 있었다. 영화에서처럼 “지금 돌아와! 안 그럼 죽어!” “내가 책임질테니 너희들은 먼저가!” 서로 소리치던 장면은 참 지금 생각하면 재밌다. ‘그녀들’은 결국 천왕봉에서 일출을 보고 자 하는 의지에 새벽 12시에 온 전화벨을 알람인 줄 알고 사람들을 깨우던 소동 끝에 다음 날 새벽, 삼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었다던 천왕봉 일출을 보았다.



마지막 날 아침, 찬 기운 안개가 휘몰아치는 장터목 산장에서 남은 재료를 다 뒤섞은 아침식사를 두 그릇씩 했다. 라면과 카레, 누룽지와 짜장, 밥과 카레, 스프 세 가지 맛을 한꺼번에 맛보는 새로운 식단이 개발된 것이다.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은 오매. 밥 먹다가 말 다리 같은 마라토너 언니를 보고 미친 듯이 뛰어가 기념촬영을 했다. “무슨 운동하세요?” 그 언니가 우리에게 물어봐주었다. 드디어 우리에게도 포스가 생길 것일까. 내친김에 각자 배우고 있는 무예를 뽐내고, 장터목산장 마당에서 죽염 양치질을 하면서 아쉬운 하산을 준비한다.



4 하산 후……. 그리고 지금

종주를 하면서 산 끈을 알아보는 법을 알아냈다. 산 끈은 아무리 힘들어도 미소와 인사를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종주 중에 지치면 하던 인사도 잊게 되고 혼자 지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산 끈들은 달랐다. 힘들면 오히려 자신만만한 얼굴로 “힘내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라고 인사와 격려를 건넸다. 가끔 거짓말(?)도 있긴 했지만 먼저 인사를 걸어오는 여유에서 배울 점을 발견했다.



힘든 순간 뒤를 돌아봤을 때 눈앞에 펼쳐진 풍경들을 보며 뛰어두고 싶은 욕구도 솟아올랐다. 이게 지리산에 매력이거나, 숨을 헐떡이며 아무 생각 없이 뒤를 돌아본 순간 펼쳐진 풍경은 더욱 지리산이 아름답게 보였다. 그래서 오르막길이 더 좋았는지 모른다. 높은 곳에서 보는 경치, 같은 산이지만 보는 기쁨은 달랐던 것 같다. 오르막길을 잘 타는 사람과 내리막길을 잘 타는 개인적인 차이를 발견하고 개인적인 차이를 이용해서 부분별 코스를 나누어 산행경기를 하면 재미있을 것 같은 생각도 잠시 해본다.

내리막길이 힘들어서 싫어했던 내 모습이 “겁”이라는 단어에 속도를 내지 못한 내 자신을 발견했다. 평소에도 겁 때문에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나를 발견하고 고치려고 노력하자 했던 모습이 2박 3일 동안 나를 괴롭게 했었다.

평소에 부족했다고 생각한 끈기와 책임감을 발견 했다. 어쩔 종주하면서 나도 모르게 길러진 것은 아닐까 흐뭇한 의심이 든다. 종주하면서는 예상 시간 안에 산장에 도착하자는 생각으로 달리듯 길을 갔던 것 같다. 좀 더 여유 있게 구경하면서 나 자신과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리산을 다시 오겠다, 안 오겠다 여러 번 말이 바뀌던 나에게 그 아쉬움이 또다시 지리산을 오겠다고 다짐할 수 있던 계기가 되고 있다. 이 정도면 다른 몸 되기 프로젝트는 대성공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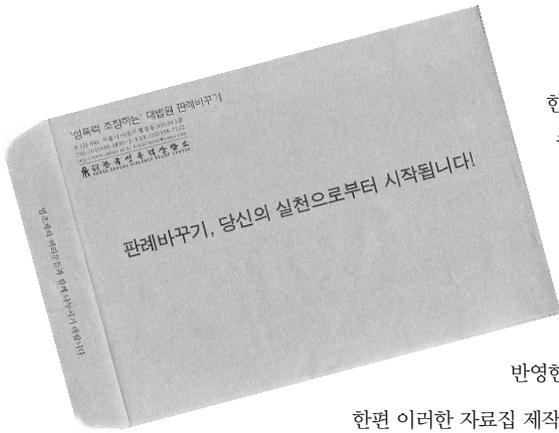
힘든 일정을 마치고 우리 모두는 이미 다른 몸이 되어 중산리를 마지막으로 하강 하고 있다. 다시 내 방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나의 흥을 더욱 들뜨게 해주었다. 첫 출발 때 두려움과 생각의 의문이 풀린 것 같은, 답을 찾을 것 같은 느낌. 무사고로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순 있지만, 첫 출발과 지금의 내 모습은 같은 모습이 아니다. 이미 다른 모습이다. 애초부터 예전의 몸으로는 절대로 방에 돌아갈 수 없었다.

버스를 타러 내려가는 순간 “생초 장하다, 대단하다” 혼자 중얼거리며 칭찬을 했다. 나는 이제 산 끈이다. 산의 매력, 자연의 아름다움을, 자연 속에서 많은 걸 배웠던 시간이었다. 왜 사람들이 등산을 하고 산을 찾는지 알 것 같다. 산은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반겨준다. 변하는 건 우리의 모습과 마음. 



여성주의 관점의 성폭력 판례 비평

◎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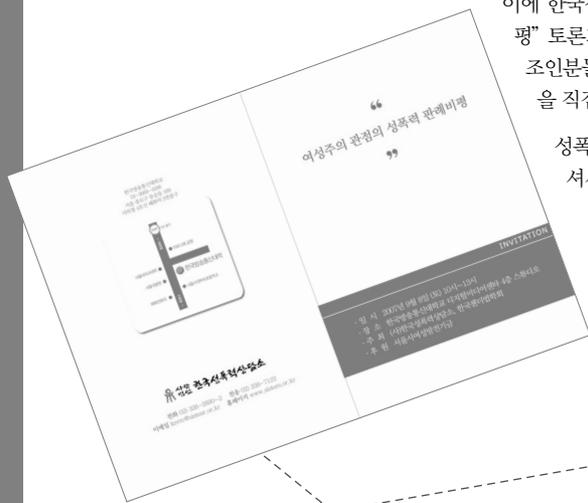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1년 동안 '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을 진행해왔습니다. '대법원판례 바꾸기' 운동은 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글을 담아 판사, 검사 등 사법기관에 올바른 수사와 판결을 촉구하는 운동입니다.

그동안 대법원판례 바꾸기 운동 자료집에서는 1)최형의설 비판, 2)아내간간, 3)아동성폭력에 대한 쟁점, 4)비장애인 중심의 성폭력 판단기준 비판의 네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이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형의설 비판"은 성폭력에 대한 고질적인 통념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1차에서 12차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이러한 자료집 제작과 발송의 방식은 상담소 일방의 의사 전달만을 해왔다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몇몇 법조인 분들이 이 운동에 대한 지지의 뜻을 전해주시기도 하였지만,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이 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폭력 판결의 경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한국젠더법학회와 공동으로 "여성주의 관점의 성폭력 판례 비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특히 한국젠더법학회에서 활동하시는 현직 판, 검사를 비롯한 법조인분들이 많이 참석하시게 됨으로써, 이 운동에서 제기한 성폭력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모두모두 대환영입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이기를 바랍니다.



일시 : 2007년 9월 8일(토) 10시~13시
장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디지털미디어센터 4층 스튜디오

초대합니다

사회 : 최은순 변호사(법무법인 새길, 학회이사)

10:00~10:05 개회사 _ 김엘림 교수(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국젠더법학회 회장)

10:06~11:00 발제 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바꾸기 운동의 의의와 전망 _ 이미경 소장(한국성폭력상담소)
대법원 성폭력 판례의 흐름과 문제 _ 이경환 군법무관(한국성폭력상담소 법정지원팀)

11:00~11:10 휴식
11:11 ~12:10 지정토론

박미숙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학회회원)
신숙희 판사(서울고등법원)
양소영 변호사(대한변협, 법무법인 서광)
이유정 변호사(법무법인 자하연, 학회 이사)
이호중 교수(한국외국어대 법학대학)
황은영 검사(춘천지방검찰청)

12:11~12:55 종합토론 발제자, 지정토론자, 참가자의 자유토론



책임상담원 토리

안녕하세요.

새로 책임상담원을 맡게 된 토리입니다.
 2005년에 22기 초 교육을 받고 상담원으로 활동을 하던 중,
 지난 7월부터 책임상담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보다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성실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부정적이 듭니다.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새로 상담 활동을 시작하신 선생님들과 더 친밀해지고 싶고,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큼니다.
 모든 활동은 재미와 보람으로 오레오레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상담원 활동의 즐거움이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 모두에게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김혜경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혜경입니다.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폴리포인 현재 유기입니다.
 이곳에서 시간을 갖고 안정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영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상담소 덕분에 제가 한국에서 했던 일들을 기억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상담소와 함께했던 시간들은 시간이 지나도 제일 잘한 선택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함께했던 책임상담원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또 연락드릴게요. 모두 크게 웃고 식사하세요! 바깥쪽 생활이 갑자기 나서...
 폴리포인 학교에서 김혜경 드림

[편집자주] '토리' 선생님께서 김혜경 선생님이 이어 책임상담원으로서 활동하시게 되었습니다. 김혜경 선생님
 께 그동안의 시간들에 대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서든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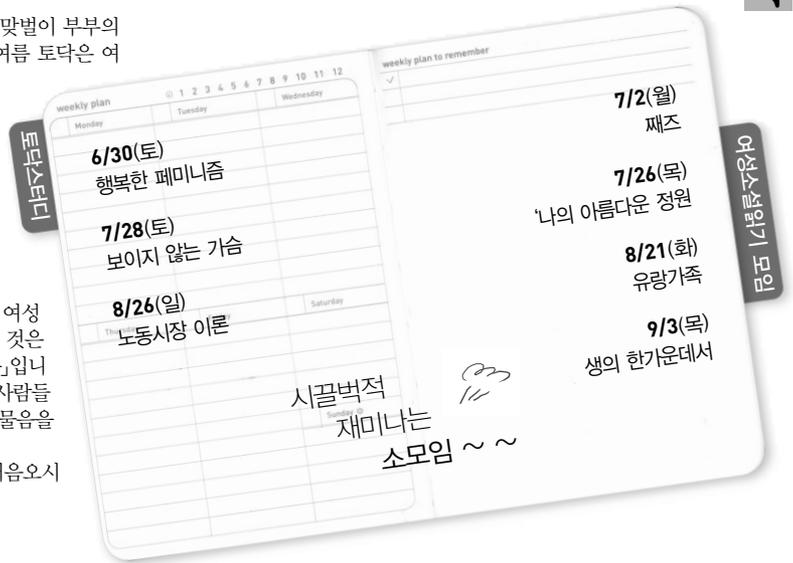
[소모임 활동보고]

♥ 토닥소모임

한여름, 토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돌봄과 사랑, 맞벌이 부부의 가사·양육 분담에 대한 스터디를 했습니다. 늦여름 토닥은 여성 노동 전반에 걸친 탐구와 성매매/성노동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8월 26일(일) 나탈리 소콜로프의 「노동시장이론」으로 시작합니다. 새로운 커리로 넘어가는 만큼 새로운 회원들의 많은 참여 기대 할게요~.

♥ 여성소셜읽기 모임

바야흐로 가을, 독서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네요. 여성 소설을 통하여 여성들의 다양한 삶을 만나 보는 것은 어떨까요. 8월의 마지막에는 공선옥의 「유랑가족」입니다. 우리사회 곳곳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가난한 사람들과 이들에 대한 세상의 횡포 그리고 관계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소설입니다. 다음 9월 소설읽기 모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처음오시



[신규회원 OT]

♥ 짝수 월 마지막 목요일에 있어요^^

[훈훈한 기부]

♥ 위스키

작년 말, 반한날 행사에서 고급 샴페인을 선물해 주셨던, 이석주 회원님께서 올 초여름에는 스카치위스키를 보내 주셨답니다. 지난 번 샴페인은 소장님 덕에 모두 모였던 날, 행복하게 즐겼습니다. 이번 위스키는 언제 소비할지 예정이 없으나 12월 평가회의와 계획회의 할 즈음, 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이석주회원님, 고맙습니다~

♥ 컴퓨터와 모니터

컴퓨터와 모니터 각각 2대씩을 서범원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 열림터 학습지도에 애쓰시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폴 님(수학), 지승경 님(영어), 토리 님(영어), 이현주 님(영어) 주혜정 님(피아노) 께서 열림터 청
소녀들의 학습지도에 힘쓰고 계십니다!



